



**[산업]**  
SK텔레콤  
불법드론 꿈쩍마!  
'5G가드드론' 떴다  
05



Economy

코스피 2103.15 (-5.60)	코스닥 726.68 (+2.36)
금리 (미국 3년) 1.48 (+0.01)	환율 (원/달러) 1183.10 (+0.50) (13일)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현지시간) 오슬로 총리관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소경제·미래선박 등 협력

### 韓-노르웨이 정상회담

#### 조선해양분야 협력 높이 평가 트로엔 의장과 성평등 논의도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친환경 미래선박 및 수소에너지 협력, ▲지속가능한 북극 보존, ▲한반도 정세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후 양국교역이 급증하는 점을 환영했다. 그중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EFTA는 EU(유럽연합) 비회원국인 4개 유럽국가(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각각 1건의 정부간 양해각서(MOU) 및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수소경제 분야 정책 교류 및 액화선박 등 기술 교류), ▲사회보장협정(양국 근로자 파견 시 사회보장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이다.

문 대통령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전인 12일(현지시간)엔 트로엔 노르웨이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가 성평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일 수 있던 것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한 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양성평등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트로엔 의장은 “북유럽에선 ‘노르딕 모델’이란 말을 쓴다”며 “노르웨이는 여성 인력을 경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된 문화와 법을 바꾸었다. 현재 노르웨이 경제에서 여성참여율은 55%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이 노르웨이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화답했다.

/우승준 기자 dn114@

## 삼성전자, 글로벌 위기 돌파구 모색

### IM부문 시작으로 전략회의 돌입

삼성전자가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잇따른 악재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IM 부문은 이날부터 상반기 전략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다음주에는 DS가 회의를 예정했다. CE부문은 경영진들이 해외를 돌며 현지 법인 경영진을 만나 머리를 맞댄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삼성전자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글로벌 주요 경영진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다. 임원들과 해외 법인장들도 참석한다. 삼성전자 전략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다.

/김재용 기자 juk@

이번 회의는 전년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법인장도 불참할 전망이다.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내부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밖에도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불황과 신형 시장 침체, 갤럭시 폴드 등 신제품 출시와 모바일 시장 공략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예년과 같이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단, 이달 초 사장단을 소집해 일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 당국,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 사후적발 → 사전예방 전환 'IPO대어' 금감원 직접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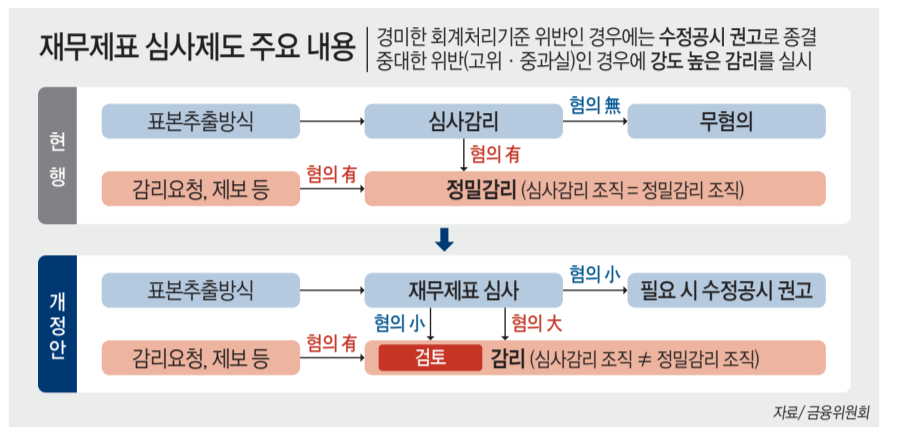
감리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상장준비기업 회계심사도 강화  
거래소·주관사 실질책임 확대

금융당국이 기존 사후적발과 제재 위주였던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이후 실질이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가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에 대해 정밀감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은 재무제표를 수정을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된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할 방침이며,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IPO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상

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대폭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대상이 아닌 IPO 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으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주관사는 직접 기술한 내용이 아니라도 IPO 기업 재무제표를 포함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기재누락 등을 적발할 책임을 갖게 된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SKC, 배터리 통큰투자... 1.2조에 동박업체 인수

KCFT, SKC 자회사로 새 출발  
2022년까지 동박생산 3배 확대  
모빌리티 사업 핵심 동력 확보

SKC가 전지용 동박 제조·판매업체인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를 인수한다.

SKC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KCFT 지분 100%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C는 세부 실사와 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KCFT는 SKC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세부 실사 과정에서는 KCFT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KCFT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기로 했다.

동박은 구리를 고도의 공정기술로 얇게 만든 막으로 이차전지 음극에 쓰이는 핵심소재다. 전지용 동박은 얇을수록 많은 음극 활물질층을 채울 수 있어 배터리 고용량화와 경량화에 유리하다.

전북 정읍시에 생산공장을 둔 KCFT는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



전라북도 정읍 KCFT 공장 전경

/연합뉴스

준의 이차전지용 동박 제조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자기술로 머리카락 30분의 1 크기인 4.5μm 두께의 초극박 동박을 세계 최장 50km 길이의 롤로 양산화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SKC는 KCFT 인수를 발판 삼아 2022년까지 동박 생산능력을 3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SKC 40년 노하우가 담긴 필름 제조기술을 더해 더 얇고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SKC가 모빌리티 사업에서 성장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SKC는 지난 2016년

선포한 ‘글로벌 스페셜티 마케터’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2017년부터는 모빌리티와반도체,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집중했다.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이 추진하는 배터리 산업의 안정적인 수직계열화 생산체제 구축에도 한발 다가선 것으로 여겨진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뛰어넘어 배터리 관련 수직계열화로 전방위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BaaS(배터리를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략)’를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갈라파고스 규제에 길 잃은 숙박공유... 활성화 입법 시급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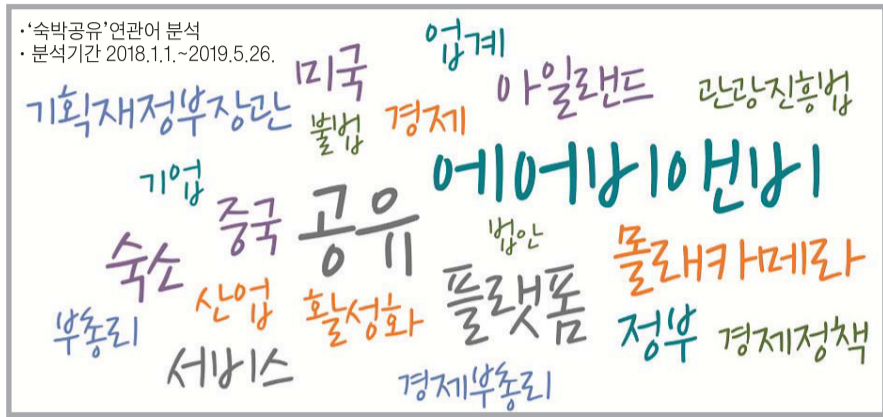
불법 시설운영 24명 형사입건  
17일부터 업체 1천곳 실태점검  
관련규정 없어... 입법 마련해야

불법 숙박공유는 막고,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는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정비로 '착한 공유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놴.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 외국인만 묵을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진안을 무시하듯 불법 숙박공유는 벌써부터 난립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Argos(bigdata.nanet.go.kr)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실제 서울시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당시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를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맹점을 약화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제2도

시로 꼽히는 부산에서도 지난해 불법숙박업 적발 건수는 225건에 달했다.

불법 숙박공유가 판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부터 등록·미등록 공유숙박업체 10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는 이미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감시해 위반 사례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도 새로운 형태의 호스트를 통한 숙박공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숙박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 기존 법률을 적용한다. 공유숙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만 두고 조합·해석하고 이에 따라 규율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숙박공유 관련 법을 '주택숙박사업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호스트의 양태를 주택숙박사업자·주택숙박관리업자·주택숙박중개업자로 나눠 각 장마다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자로서의 업무사항과 국가로부터의 감독, 업무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는 지난 2014년 10월 단기임대업 등을 허용하는 일명 '에어비앤비법'으로 불리는 조례를 가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08년 8월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국회도서관은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부합한 숙박공유 관련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이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전문경력관은 "숙박공유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면서도 "기존 숙박업·임대주택시장 참여자에 비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출현으로 '디지털 개인 거래(P2P)'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창덕궁 모내기 행사 13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등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취업자수 늘었지만... 지역·연령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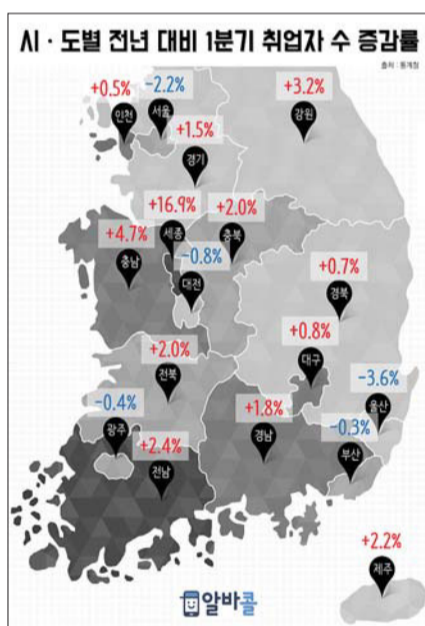
1분기 경제활동 인구조사

세종 16.9% 늘고, 서울 2.2% 줄어  
50대 이상 증가하고 30~40대는 ↓

올해 1분기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연령대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0~40대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13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통계청의 17개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총 17만8000명, 비율로는 0.7% 증가했다. 하지만 시도별 취업자수 증감률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6.9% 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남도' (4.7%) ▲'강원도' (3.2%) ▲'전라남도' (2.4%) ▲'제주도' (2.2%) ▲'충청북도' (2.0%) ▲'경상남도' (1.8%) ▲'경기도' (1.5%) 그리고 ▲'대구광역시' (0.8%)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10위권 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부산광역시' (-0.3%) ▲'광주광역시' (-0.4%) ▲'대전광역시' (-0.8%)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울산광역시' (-3.6%)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율이 -2.2%로 집계되며 마이너스 대열에 포함됐다.

연령대에 따라 5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총 33만 5000명, 비율로는 1.3% 늘었다. ▲'50대'와 ▲'20대' 취업자 수는 각각 8만 1000명(0.3%), 4만명(0.2%)씩 증가했다. 반면, 30~40대는 줄어든 모습이 확인됐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0만8000명(-0.4%), 15만4000명(-0.6%)씩 감소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시도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17.8%)였으며 ▲'제주도' (16.1%)와 ▲'충청북도' (15.8%)에서도 선전했다. 앞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적었던 ▲'울산광역시'에서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률은 8.1%를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20대 취업자 수의 경우 지역별 증감률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구광역시' (12.1%)와 ▲'충청남도' (11.0%)에서는 두 자릿수 증감률을 보였지만 반대로 ▲'울산광역시' (-15.5%)를 대표적으로 ▲'강원도' (-6.7%)와 ▲'전라북도' (-4.0%)의 경우 이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용수 기자 hys@

## 현대중, 대우조선 현장실사기간 연장할 듯

대우노조 반대에 산은과 협의키로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협의해 현장실사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대우조선 노동조합 등이 거제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24시간 봉쇄하면서 현장실사는 당초 예정된 것과 다르게 기한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CFO·최고재무관리자), 강영 전무 등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10여명은 지난 12일 대우조선 노조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불발돼 실사를 접고 돌아갔다. 지난 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실사를 위해 조선소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 반대로 물러난 지 10일 만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12일 협의를 거쳐 이들 동안 중요부분에 대한 축소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실사단은 또 11일 옥포조선소 인근 애드미럴호텔에서 4차 간담회를 갖자고 노조에 제안했지만 노조 측에서는 매각절차가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회계법인 등을 통해 문서 실사,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열람을 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실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산업은행과 협의해 기한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실사를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대중공업 강성 조합원 수십명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해양 기술관 1층 안전교육장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교육을 중단시켰다. 당시 교육장에는 직원과 다른 조합원 80명 가량이 교육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노조 측이 법인분할을 다룰 주총장을 봉쇄하자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한 이후 현장에서 조합원과 회사 관리자, 파업 참여 조합원과 비참여 조합원 사이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 주총을 앞두고 현중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본사 본관 진입 시도, 공장 전원 차단 등 생산 방해, 주총 이후 현장에서 관리자 폭행 등을 한 것으로 보고 노조 간부 79명을 고소·고발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5월 외국인 주식자금 26억달러 순유출

미·중 무역갈등에 투자심리 위축

지난달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주요국의 주가와 국제금리가 상당폭 하락했다.

다만 6월 들어서는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협상 타결,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4억 6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지난해 1월(52억2000만달러) 이후가

장 큰 규모다.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이 커진 것은 채권자금이 원·달러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저가 매수세 등으로 상당 규모 유입됐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자금은 60억 4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유입세로 2008년 4월(61억5000만달러) 이후 유입폭이 가장 컸다.

반면 주식 투자자금은 25억8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순유출로 전환된 것은 지난해 11월(-1000만달러)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이 컸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168.2원에서 5월 1190.9원까지 올라갔다가 6월 11일 기준 다시 1180.4원으로 떨어졌다.

환율 변동성은 확대됐다. 지난달 중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전월 대비 3.5%로 4월(3.3%)보다 더 확대됐다. 같은 기간 변동률은 0.28%에서 0.30%로 증가했다.

외환스왑레이트(3개월)는 양호한 외화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일 기준 -1.20%로 지난 4월(-1.38%)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통화스왑금리(3년)는 국고채 금리 움직임에 따라 0.95%에서 0.71%로 0.24%포인트 떨어졌다. /김희주 기자 hj9@

### 新외감법 도입 앞두고 회계업계-기업 엇갈린 시각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 등 벌써 부작용

시총 100위 중 23개사 감사인 변경  
감사비 폭등·높아진 리스크 이중고

오는 11월부터 세계 최초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한국에서 시작한다. 회계법인은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감사 계약을 맺는 만큼 '표준감사시간제' 도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계 개혁의 시작점인 '신(新)외감법'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의 반발이 만만찮다. 신외감법 도입이 기업에겐 상당한 회계 부담이 불가피해서다. 일부 회계법인의 '갑질'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회계 개혁은 시작됐지만 회계업계와 기업 간의 견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총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바뀔 전망이다.

#### ◆감사인 지정제 11월 시행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회사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6년 자율선임 후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개사의 감사인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인을 교체한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실시한 감리결과가 무형의인 경우 지정이 면제되며, 감리종인 경우와 기존 감사계약('19.11월 이전 체결)이 미종료된 경우 지정이 연기

자유선임

← 6년(사업연도) →

주기적 지정

← 3년(사업연도) →

**통보시기** 2019년 11월에 2020년 지정감사인을 통지(10월 사전통지)

**회사업무**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후 9월 둘째주까지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자료/금융감독원

이처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파트너십' 형태도 견고하게 다져진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관계를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관계로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감사인에게 기업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다.

감사인 지정제의 시행으로 '표준감사시간제' 적용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새로운 기업과 감사계약을 맺으면서 표준감사시간에 맞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적절한 감사시간을 규격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 비교해서 감사시간이 20~4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충분한 감사가 이뤄져야 감사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도입의 취지다.

#### ◆신외감법 도입에 기업들 '한숨'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업들의 속앓

이도 상당하다. 기업들은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회계 부담이 과중하고, 급진적으로 이뤄져 속도를 맞추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특히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다양한 업종의 코스닥 기업을 업종별 11개 그룹으로만 나눈 표준감사시간제의 실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외부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따라 감사비가 네 배 가까이 오른 기업도 나왔다. 감사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감사비용 증가다. 기업은 높아진 감사 리스크와 급등한 감사비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제를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최중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업데이트 하는 등 계속해서 기업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제 감사시간 상승을 제한을 걸고,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많은 후퇴가 있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른바 '회계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인이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켰으나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 감사인의 권한으로 컴퓨터 등 모든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게될 뿐만 아니라 감사비는 2배에서 4배까지

급등한다.

####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일부 감사인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운다던가 퇴직자의 핸드폰까지 압수하는 등 오남용이 발생했다"며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감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는 것도 문제다.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작성 전 기업과 합당한 커뮤니케이션도 피하는 것이다.

한 IR담당자는 "주총에 임박해서야 우리 회사의 감사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다"면서 "충분히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회계 개혁의 강도가 강화될수록 기업과 감사인의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지만 매년 자산규모 순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 결국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표준감사시간제 역시 올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지만 2021년에는 자산 200억원 이상 상장사들도 일부 적용대상이 될 정도로 범위가 넓어진다.

/손엄지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 구속 면한 조현아, '경영복귀' 빨라지나

집행유예 2년·벌금 480만원 선고  
남은 재판 진행... 당장은 어려울 듯



선고공판 마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명품 밀수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면서 그의 경영복귀가 가시권에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흘 전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한 뒤여서 이런 관측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아직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해 재판 결과가 그의 경영복귀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국적기를 이용

조현민 전 전무가 이달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아직 두 개의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당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날 인천지법의 집행유예 판결로 그의 경영복귀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애물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는 임원 자격으로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경영복귀를 원한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귀한다면 지난해 한 달간 사장으로 복귀했던 호텔 사업을 맡으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국내 펀드 순자산 607.5조... "채권형 견인"

지난 4월 전체 펀드 순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 달에도 순자산 규모 증가세는 이어졌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형 펀드 수탁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5월 국내 펀드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순자산 규모는 607조5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0.3%) 증가했다. 설정액은 604조7000억원으로 7조원(1.2%) 늘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주식형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 추세가 지속되고

평가액도 급감했다"며 "반면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채권형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전체 채권형 펀드순자산은 117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6500억원(3.2%) 늘었다. /손엄지 기자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도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상장주관사 부실실사 과징금 확대할 것

#### ▶▶ 1면 '사후적발-사전예방...'서 계속

금융위 "現 20억원... 대폭 올릴 것"

금융위는 상장주관사의 부실 실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대폭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IPO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내역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IPO 기업 중 자산이 1조원 이상이거나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재무제표 심사에 나선다.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진해서 정정할 경우 제재 등 부담은

줄여준다.

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회계기준 위반동기가 '과실'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리를 거쳐 제재는 하지만 자진 정정임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오류 정정 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 정정 유추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이전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 카뱅 사잇돌대출 통했다... 열흘 만에 쏘은행권 한 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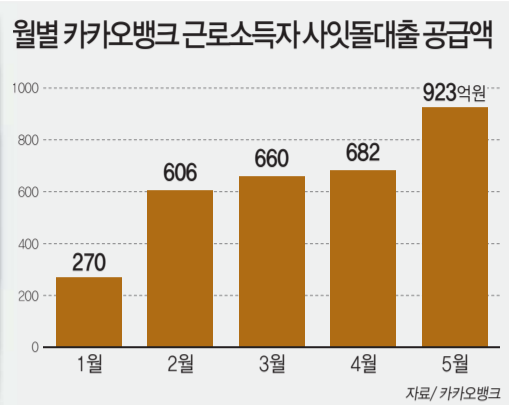
〈개인사업자 대상〉

취급액 120억원...2030 수요 많아  
소득 기준, 중도상환 해약금 없고  
비대면승인 등 차별화로 흥행가도

카카오뱅크가 새로 내놓은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이 흥행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출시 10여일 만에 전 은행권의 한 달 취급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앞서 선보인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 역시 취급실적이 전 금융권 대비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3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출시한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지난 9일 기준 12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의 시장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기존 전 은행권의 취급실적이 월 100억원 안팎인 것을 감



안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이다. 비슷한 정책 중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저소득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데 반해 사잇돌대출은 소득상한 기준이 없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21일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을 출시했고, 지난달 말

부터는 대상을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의 증가속도도 빠르다.

근로소득자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3140억원으로 출시 10달여 만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 은행권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60%에 달한다.

출시 첫 달 2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월 606억원 ▲3월 660억원 ▲4월 682억원 ▲5월 923억원 등으로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대출 가능여부 조회부터 실행까지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이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편리함에 상품 자체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카카오뱅크의 사잇돌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점도 다른 곳과 차별화된 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사잇돌대출도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900만명이 넘는 카카오뱅크의 고객 가운데 상당 부분이 20~30대로 사잇돌대출 등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중금리대출이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보증보험(SGI)이 원금을 보장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962만명이며, 수신과 여신은 각각 16조8171억원, 10조7126억원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KB금융, 예비 외식창업자 연락처 돕는다

위대한상사와 창업 생태계 협약  
종합금융서비스, 컨설팅 등 제공



KB금융그룹 SME부문 신덕순 전무(오른쪽)와 위대한상사 김유구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위대한상사와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대한상사는 소자본 예비창업자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매장을 타인에게 공유해 주는 기존 자영업자를 매칭하는 공유점포 플랫폼 서비스 '나누다키친'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이다.

KB금융은 이번 협약으로 '나누다키친'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서비스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산업 창업 인큐베이팅 콘텐츠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KB금융 SME부문 신덕순 전무는

"창업 후 3년 내 폐업률이 60%에 달하는 등 초기 사업안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실패하면 재창업조차 하기 어려운게 소규모 창업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라며 "외식 부문 창업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KB금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 우리금융지주, 후순위채권 3000억 발행

역대 최저금리인 2.28%로 확정

우리금융지주는 3000억원 규모의 10년물 원화 후순위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채권은 바젤3 도입 이후 국내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최초로 발행된 원화 후순위채권이며,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조건부차본증권 중 역대 최저금리인 2.28%로 확정됐다. 채권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됐고, 수요예측에서 예정금액 대비 2.7배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당초 신고된 금액보다 많은 3000억원으로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행된 후순위채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했다"며



서울 우리은행 본점.

"이는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실적 및 향후 비은행부문의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시장의 신뢰와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3월 말 대비 우리금융지주의 BIS비율은 14b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영 기자

## 신한베트남은행, 하남성에 신규 지점

하노이 남부지역 거점 마련  
"올해까지 6개 지점 추가 설립"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 하노이 남부지역에 위치한 하남성에 하남지점을 개점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남성은 북부 경제권인 하노이와 인접해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노동인구를 제공해 투자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 박닌, 타이응웬, 하이퐁에 이어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다.

하남지점은 기업투자금융(CIB)센터 운영해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신한은행 디지털그룹 서춘석 부행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및 코참, 하남성 인민위원회 등 주요 기관장과 고객들이 참석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외국계은행으로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신한베트남은행 하남지점에서 열린 개점행사에서 신한은행 신동민 베트남법인장(왼쪽에서 열번째)과 코참 김한용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하남성 인민위원회 휘(Mr. Huy) 부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서 최초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하며 베트남 전역에서 기업금융은 물론 개인 고객들의 자산관리 업무 및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이번 하남지점 개점으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외국계 은행 최다인 총 32개 지점망을 보유하게 됐다. 향후 추가로 4개 지점을 설립해 올해 말까지 총 36개 채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금융위 및 금감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남지점을 포함해 올해 중 6개 지점 설립을 추가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하남지점 개점을 통해 하남성 뿐 아니라 하노이 남부 지역인 닌빈, 남딘, 타이빈 성 소재의 기업 및 개인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KEB하나銀, '기업승계' 법률자문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율촌과 업무협약  
중장기 승계 플랜 등 지원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는 지난 5월 출시한 하나은행의 기업승계 종합 컨설팅 서비스로 ▲가족간 자산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리빙 트러스트 서비스' ▲중견·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후계자 승계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서비스' ▲기업상장(IPO), 매각 및 인수를 지원하는 '기업매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은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타워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의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EB하나은행

이번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오너인 '하나 헤리티지 멤버스' 손님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법률자문서

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기업승계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1:1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식승계신탁 상품을 활용한 중장기 승계플랜의 이행을 지원해 보다 전문성 높은 기업승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장은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업승계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 100년 기업승계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토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영 기자 hong93@

# 불법드론 꼼짝마!... SKT '5G가드드론' 땀다



**SKT-신라대-육군53사단-한빛드론**  
불법드론 공동대응 시스템·체계 시범 구축  
고도·시간·무게 등 지키지 않은 드론 단속  
'안티 드론 솔루션'이 탐지 후 육군이 제거

자율 비행 드론이 테러 드론 위협을 막는다.  
SK텔레콤은 부산 신라대학교, 육군 53사단, 드론 솔루션 기업 한빛드론과 테러·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는 드론을 감시·추적하는 '불법 드론 공동 대응 시스템 및 체계'를 시범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드론이란 군·공항 관제권, 기차역 주변 등 비행 금지·제한 구역을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허용 고도·시간·기체 무게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영국 개트윙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불법 드론이 침입해 항공 운항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물질·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주요 인물, 시설을 공격한 적도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김해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추적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891건의 비행 시도가 있었다.  
이에 이들 네 개 기관·기업은 불법 드론 탐지에서 식별, 추적, 무력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각 단계별로 5G, 안티 드론 솔루션, 드론 자율 비행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적용했다. 관제 상황실과 솔루션은 부

산 신라대학교에 설치됐다.  
12일 참여 기관·기업은 김해공항과 2km 떨어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다양한 사양의 드론 5대와 5G스마트폰 12대가 쓰였다. 훈련 현장은 5G망을 통해 부산 신라대학교 강당 및 관제센터, 53사단 종합상황실로 생중계됐다.  
이번에 구축한 불법 드론 대응 체계는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 ▲위해 요소 제거 등 5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별로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탐지'는 신라대에 구축된 '안티 드론 솔루션'이 담당한다. 일종의 '드론 레이더'다. 특수 장비가 20m 높이의 신라대 철탑에 설치됐다. 이 장비는 드론 조종시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를 감지해 반경 18km 내 불법 드론 및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한다. 비행 금지 구역 내 드론이 이륙하면 비상음과 함께 정확한 좌표가 시스템에 표시된다. 탐지율은 약 90% 이상이다.  
불법 비행을 파악하면 '식별과 추적'을 위해 '5G가드 드론'이 출동한다. '5G가드 드론'에는 드론에 각종 명령을 내리고 초고화질 영상을 전송하는 '라이브캐스터' 솔루션과 5G 스마트폰이 탑재돼 있다.  
'라이브캐스터'는 안티 드론 솔루션에 표시된 불법 드론 좌표를 5G를 통해 곳곳에 대기 중인 가드 드론에 실시간 전달한다. 5G 가드 드론은 불법 드론 위치로 자율 비행을 통해 이동 후

움직임을 감지해 추적하게 된다.  
라이브 캐스터와 5G 스마트폰이 촬영한 현장 영상은 실시간으로 신라대 및 군 상황실로 전송돼 불법 드론에 탑재된 물체를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무력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는 육군과 '재밍건(Jamming Gun)'이 활약한다. 불법 드론에 폭발물 등이 확인되면, 육군 53사단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재밍건을 발사하고, 위해자를 제압한다. 휴대가 가능한 소총 모양의 재밍건은 드론 조종사와 불법 드론 사이의 전파를 교란해 드론을 제자리에 정지시키고, 강제 착륙 시키는 특수 장비다. 고도 500m에 비행하는 드론까지 제압할 수 있다. 이후 53사단 폭발물 처리반이 불법 드론의 위험물을 제거하게 된다.  
참여 기관·기업은 불법 드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 기술 개발, 합동 훈련, 대응 체계 고도화를 3년 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드론 대응 체계와 기술을 솔루션 패키지로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전국 주요 시설에 확산 적용기로 했다.  
SK텔레콤 최낙훈 5GX IoT·데이터 그룹장은 "첨단 기술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 수 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솔루션 고도화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다양한 국가 기관, 학교와 협력해 공공 안전을 위한 5GX 드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53사단 5분 대기조가 삼락생태공원에 등장한 불법 드론을 재밍건으로 제압해 강제 착륙 시키고 있다. / SK텔레콤

## LG전자, 인도 원전에 터보 냉동기 공급

2021년까지 3·4호기에 공급

LG전자가 인도 원자력 발전소 냉방을 책임진다.  
LG전자는 최근 인도 릴라이언스인프라스트럭처와 터보 냉동기(사진) 1000만달러 규모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 냉동기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 쿨쿨람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공급된다.  
앞서 LG전자는 쿨쿨람 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도 냉방시스템과 공조 설비를 공급했었다. 인도 현지와 글로벌 업체들을 제치면서 향후 이어질 인도 원자력 발전소 공조 시설 수주에서



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LG전자 터보 냉동기는 2단 압축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운전비는 절감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 냉방 효율을 갖췄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공급한 바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전자, 품질·일자리 '두 토끼' 반도체 배관아카데미 수료생 배출

삼성전자가 품질과 일자리 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13일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 아카데미에서 올해 교육 1기 수료생 수료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지난 해 2월 삼성전자와 8개 협력사가 함께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동일한 시설에서 실무 중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다.  
1기 수료생은 30명이다. 앞으로 협력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인프라 설치에서 유지 보수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



이다. 그 밖에도 반도체 인프라 전문 인력을 140명 배출해냈으며, 올해에도 100여명을 새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현대·기아車, 美자율주행업체 '오로라' 전략투자

## 수소車 넥쏘 등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맞손

협업통해 자율주행車 상용화 추진  
AI 기반 인지·판단 기술 고도화

현대·기아자동차가 외부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자율주행업체 '오로라'에 전략투자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오로라는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로라는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 엄슨, 테슬라의 자율주행기능을 담당했던 스티빙 앤더슨, 우버의 인식기술 개발 담당 드류 배그넬 등 세계 유수의 자율주행 기술자들이 모여 창립 초창기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가 상호 협력 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8년 1월이다. 당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크리스 엄슨 오로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에서 상호 협력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후 양사는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공동 연구해 왔다. 수소전기차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장거리 주행에 강점을 보여 자율주행 시험차량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쏘 이외의 차종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를 확대해 현대·기아차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오로라의 자율주행시스템인 '오로라 드라이버'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인지·판단 영역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오로라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업으로 자율주행 부문 핵심 플레이어로 위상을 확장한다는 각오다. 오는 2021년 친환경차를 활용해 '레벨 4' 수준의 로봇택시 시범사업 성공을 목표로, 사용자안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수준의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반 통합 제어기 개발을 위해 미

국 인텔·엔비디아와 협력하는 한편, 중국의 바이두가 주도하는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고성능 레이더전문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메타웨이브, 이스라엘의 라이다 전문 개발 스타트업 옴시스,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 등에 전략투자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7년 CES에서 아이오닉 기반의 자율주행차 라스베이거스 도심 주야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넥쏘와 제네시스 G80에 자율주행 4단계 수준의 기술들을 탑재, 서울-평창 간 190km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시연했다. 지난해 8월에는 화물 운송용 대형 트레일러로 의왕-인천간 약 40km 구간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성공하며 앞선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리 자동차 평칭평 부총재(왼쪽)와 LG화학 김중현 사장(오른쪽)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LG화학

# LG화학, 中 EV공략 지리사와 합작법인

로컬 브랜드 1위 자동차업체  
1034억씩 출자, 올해 말 착공  
완공 땀 배터리 10GWh 생산

LG화학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해 중국 '로컬 브랜드 1위' 지리 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을 설립한다.

LG화학은 전남 중국 저장성 Ningbo시에 위치한 지리 자동차 연구원에서 지리 자동차 평칭평 부총재, LG화학 전 지사업본부장 김중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LG화학과 지리 자동차가 50대 50 지분으로 각 1034억원을 출자한다. 공장 부지와 법인 명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1년말까지 전기차배터리 1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2022년부터 지리 자동차와 자회사의 중국 출시 전기차에 공급된다.

양사가 합작법을 설립하게 된 것은 중국 시장 공략이 필요한 LG화학과 높은 품질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중요한 지리 자동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점유율 1위인 지리 자동차는 2020년부터 판매량의 9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LG화학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배터리 업체 및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검토해 왔다. 합작법인 설립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기대했다. 특히 로컬 1위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으로 2021년 이후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업체와의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독자 기술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세계 유수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중현 전지사업본부장(사장)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합작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로컬 1위 완성차 업체인 지리 자동차를 파트너로 확보하면서 중국 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며 "합작법을 통해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

## 황창규 KT회장, FAO 컨퍼런스 기조연설

# “ICT기술로 가축전염병 확산 막는다”

FAO와 농업혁신 공동노력 협약  
생산성 높이고 감염병 보호 등  
5G기술로 혁명적 변화 이룰것

“5G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 공식행사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제안했다. KT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ICT를 기반으로 농업혁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최로 개막한 '디지털 농업혁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기조연설은 FA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1945년 설립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94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 중 하나다. 이번 컨퍼런스는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2일 오전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황창규 회장은 세계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감염병을 고통받고 있는데 감염병으로 인해 연간 지출되는 비용은 600억 달러(약 7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2015년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1만6600명이 격리되고, 19억 달러(약 2조2500억원) 규모의 사회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를 들었다.

황 회장은 “5G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다면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디지털 농업혁신'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T

고 강조했다. ICT 혁신기술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축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창규 회장은 ICT를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의 40%를 차지하는 축산물을 감염병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5만여축산차량의 GPS에 기반한 농장방문 정보를 분석해 전파 위험을 평가하는 '동물감염병 방역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 국가로 확산된 것은 동물감염병의 국가간 전파 차단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라고 소개했다. 특히 사람을 매개로 동물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가 여행자에 의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제안한 GEPP는 동물감염병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회장은 GEPP와 혁신적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플랫폼(LEPP)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 LEPP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각국 정부가 축산농가 정보를 LEPP에 공유해줄 것을 제안했다.

KT는 12일 오전 황 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FAO와 MOU를 체결했다. KT와 FAO는 지난 5월 1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ICT 기반 세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의향서(LOI)'를 맺은 바 있다.

KT와 FAO는 이번에 체결한 MOU에 따라 ▲스마트팜 등 ICT 농업혁신 기술 교류 ▲글로벌 농업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해커톤'을 활용한 농업 일자리 창출 ▲글로벌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협력하게 됐다.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FAO 사무총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KT와 FAO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두산중 '미래형화력플랜트 기술' 美서 인정

美 에너지부 공모, 과제 2건 당선

두산중공업은 '석탄 기반의 미래형 화력플랜트'를 주제로 미국 에너지부가 실시한 공모에 두 건의 기술과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발전 환경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신재생 에너지의 보완 수단인 차세대 발전설비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시행했다. 미국에는 현재 총 240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내 협력사인 바르엔지니어링, 노스다코다 대학 연구소 등과 함께 공모에 참여해 '석탄, 가스, ESS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가스화 하이브리드 청정발전시스템' 등 두 건의 기술과제를 통과시켰다.

첫 번째 과제인 '석탄, 가스, ESS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에서는 1000MW

초초임계압 발전기술을 250MW급으로 축소해 급속 기동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에 가스터빈과 ESS를 접목해 신재생에너지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과제인 '가스화 하이브리드 청정발전시스템'은태안IGCC(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를 통해 확보한 기술로 석탄을 가스화하고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분리한 뒤,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는 포집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했다.

이번 기술과제는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새로운 개조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발전 효율 40% 이상, 급속 기동, 2030년 이전 실증 상용화 가능한 기술 차별성 등 미국 에너지부가 공모 과정에서 제시한 평가 요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정연우 기자

페터팍스트 전시 공식 후원부터 아테온과 함께하는 로드 투어까지 고객들에 특별한 체험 기회 제공

폴크스바겐코리아가 올해도 다채로운 감성·문화 마케팅을 선보이며 고객과의 소통 확대에 나선다.

13일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10월 27일까지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진행되는 페터 팍스트의 전시, 'Peter Pabst: White Red Pink Green -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을 공식 후원하며, 전시로부터 영감을 받은 '폭스바겐 아테온 가든'을 연계해 운영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공식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30여년간 부퍼탈 댄스시어터의 무대를 책임져온 무대미술가 페터 팍스트의 단독 전시로, 전설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작품을 위해 그가 창조해낸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무대들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몇 가지를 피크닉 공간에 맞게 재구성하여 소개한다. 또한 관람객들이 페터 팍스트의 작품을 통해 얻은 감흥과 영감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도록, 이번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복합문화공간 피크닉(piknic)과 콜라베이션 실시.

시와 연계한 '폭스바겐 아테온 가든'을 피크닉 후정에 조성해 운영한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만 1000여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모인 '레인보우 뮤직&캠핑 페스티벌 2018'에 이어 올해도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공식 후원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제주도에서 '아테온과 함께하는 폭스바겐 로드 투어'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 고객들에게 특별한 시승 경험과 브랜드 체

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크스바겐코리아는 '할로윈: 레드문·서울 패션 페스티벌 2018' 참가를 통해 패션에 관심이 높은 트렌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로윈 감성을 '비틀'과 함께 풀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폴크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의 출시를 기념해 서울 강남 신사동에 '디아테온'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팝업 스토어는 아테온을 표현하는 예술작품과 함께 아테온에 대한 이야기를 각 층별로 담아냈다.

/양성운 기자 ysw@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업**

: 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정답이 아닌 해답을 함께 찾는 새로운 업(業)으로써  
사회와 기업을 함께 UP시킴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이 'UP'될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 검증된 배후수요 갖춘 '브랜드 상가' 인기 고공행진

**운서역 반도유보라·유토피아**  
인천공항 근로자·이용객 유입 기대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삼성·LG 공장 등 배후수요 풍부

**수원 SK V1 motors 상업시설**  
중고차 매매단지 예비수요자로

단지명	위치	배후수요	일정	건설사
운서역 유토피아	인천 중구 운서동 3099-4번지	7만명 인천공항 근로자 파라다이스 외 다수의 복합리조트	6월	반도건설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평택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9블록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LG디지털파크 브레인시티 복합단지	6월	GS건설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SK V1 motors 상업시설	수원 권선구 평동로 79번길 23일원	중고차 매매단지 인공지능·바이오·로봇산업 클러스터	6월	SK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예비뉴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19-19일원	용인연세의료복합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분양중	두산건설



운서역 유토피아 투시도

공항, 산업단지, 기업 등 배후수요가 있는 상가가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상가는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유동인구를 확보한 상가나 일반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 내 상가와 다르게 소비력이 좋은 기업 근로자를 주 수요층으로 갖추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검증된 배후수요를 갖춘 브랜드 상가들이 조기 완판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지난해 11월 분양한 '고덕테리움 비스타워' 1차, 2차의 경우 순식간에 완판됐다. 동탄테크노밸리, 삼성전자

화성·기흥 캠퍼스, 수원디지털시티 등 대규모 배후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동탄2신도시나 강동첨단업무단지 역시 평균 수 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동탄2신도시 SRT 동탄역 인근에 분양한 '동탄역 유럽노르웨이숲'의 상업시설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2대 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산단, 업무밀집

지구 등 검증된 상가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가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자라면 공항이나 업무시설, 산업단지 등 기업 종사자를 배후수요로 두고 있는 상권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도건설은 이달 말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운서역 반도유보라'와 단지 내 상가 '운서역 유토피아'를 동시 분양한

다. 이 상가는 키즈&라이프 복합물 컨셉트로 꾸며지는 운서역세권 최초의 브랜드 상가다. 지하 1~지상 2층, 연면적 2만2406㎡ 규모다. 공항철도 운서역도 보편 내 역세권 상가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빅5 공항'에 이름을 올린 인천공항 근로자 및 이용객들의 유입이 기대된다.

GS건설, 태영건설, 신동아건설은 이달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약 1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형 신도시이며 삼성반도체 평택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1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LG전자, LG디지탈파크, 평택 미군기지 이전까지 더해져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SK건설은 이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4-11번지 일대 '수원 SK V1 motors 상업시설'을 분양한다. 축구장 27배 규모의 수원시 권선구 중고차 매매단지를 예비수요자로 품은 데다 인접한 위치에 인공지능·바이오·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인근에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 사업과 호매실동 수원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은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예비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에서 차로 3분여 거리에 약·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의료연관 분야 기업들이 들어서는 용인연세의료복합단지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키움증권 스마트알림 고객 11만 돌파

키움증권은 투자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스마트알림 서비스신청 고객이 11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정보 스마트알림 서비스는 마켓N이슈의 시황·투자전략과 내 보유·알림 종목의 기업분석 리포트, 공시, 조회수 등급 정보, 뉴스 등을 PUSH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매일 아침 8시30분 리서치센터 서상영 연구원이 작성한 키움데일리 스마트폰에 도착, PUSH를 클릭하면 영웅문S 앱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김유진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제휴 이벤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달 28일까지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주식계좌개설 및 거래 이벤트를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카카오페이머니 1만3000원이 지급된다. 이벤트 기간 중 개설된 계좌로 10만원 이상 주식 거래시 카카오페이머니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1인당 최고 3만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손업지 기자

## 전기차배터리 부품 제조... 아우디·BMW 등에 공급

### IPO간담회

#### 에이에프더블류

19~20일 청약, 내달 초 코스닥상장  
삼성SDI 통한 수익이 매출의 90%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부품인 '음극 마찰용접단자'를 제조하는 기업 에이에프더블류가 내달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에이에프더블류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정아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공개(IPO)를 공식 선언했다. 총 392만1600주를 공모하며 공모밴드는 1만9500원~2만25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765억~882억원이다.

회사는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9~20일 청약을 받



에이에프더블류 진정아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에이에프더블류

아 7월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1998년 설립된 에이에프더블류는 2차전지 부품 전문기업이다. 원천 기술인 마찰용접 공법을 이용해 전기차 각형 배터리 필수 부품인 '음극마찰용접단자(음극단자)'를 제조한다. 현재 삼성SDI를 통해 BMW, 아우디, 폭스바

겐 등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SDI를 통한 수익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음극단자는 2차전지 출력을 위한 필수 부품이다. 에이에프더블류 관계자는 "음극단자 생산을 위한 마찰용접 설비부터 직접 설계·제조까지 하는 시스템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음극단자는 구리와 알루미늄 이종소재로 구성되는데 두 금속을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에이에프더블류의 마찰용접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 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에이에프더블류도 본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3억원,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34.4%를 달성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평균 영업이익이익률은 27.4%,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52.5%다.

에이에프더블류는 이번 상장을 통해 모인 공모자금으로 4000평 규모의 구지 공장(제4공장)을 신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핵심 부품에서 전기차의 혈관인 부스바(Bus Bar)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에이에프더블류 관계자는 "현재 부지는 매매해 놓은 상태"라며 "설비 등 세부적인 구축에 약 250억원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에프더블류는 우선 음극단자 생산 규모를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 CAF 부스바(Copper Aluminum Friction Welded Bus Bar)를 양산할 계획이다. 부스바는 배터리에서 전장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차 핵심 전력 부품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하나금융투, 대구MBC 부지 매각 MOU

하나금융투자는 13일 대구문화방송(대구MBC)과 대구MBC 사옥부지 매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MBC는 지난 5월 2일 대구MBC 사옥부지 매각 입찰을 진행해 하나금융투자 및 GS리테일, 모아종합건설로 구성된 하나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번 토지매매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4시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MBC가 위치한 대구수성구 범어동 1번지는 대구시 내 최고의 주거입지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



장준수 GS리테일 상무(왼쪽부터), 박명석 대구MBC 사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임태모 모아종합건설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은 대구MBC 사옥부지를 대구 지역 최고급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손업지 기자

### KB증권, 채권발행 플랫폼 'EMTN' 설립

공·사모 20억달러 발행한도 설정

KB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A-등급 해외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시장 진출을 위해 'EMTN(Euro Medium Term Note) 프로그램'을 설립했다고 13일 밝혔다.

'EMTN 프로그램'은 발행 가능한 채권 종류, 최대 채권량, 제한사항 등 발행 약관과 조건들을 명시 후 시장 여건 및 투자자 수요에 따라 명시된 내용의 채권을 기동성 있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발행 플랫폼이다.

KB증권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경쟁력 있는 구조화 파생결합증권(사채)을 공급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사채) EMTN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공·사모 통합 총 20억 달러의 발행한도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아시아 및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 20억 달러의 한도가 소진 될 때까지 자유롭게 파생결합증권(사채)을 발행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의 강력한 브랜드네임 및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EMTN 프로그램' 활용 시 해외 신규 고객발굴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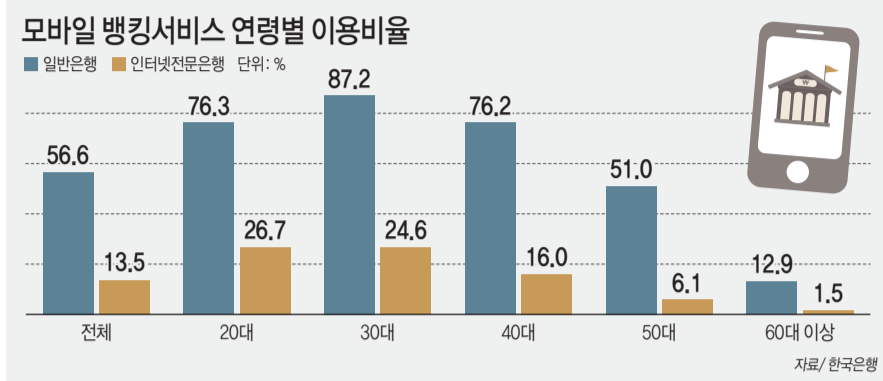
가속화되는 디지털금융 속 소외되는 고령층

# 모바일뱅킹 이용률 13%... 어르신 위한 별도 앱 개발해야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

이순호 금융연구원  
금융 착취 유형 분석해 교육해야

변혜원 보험연구원  
주된 수요층, 전용상품 개발 필요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고령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원은 13일 ‘디지털 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거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금융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령 소비자층은 디지털 금융이 확대될수록 금융서비스 이용을 꺼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에 따

르면 전체가계의 56.6%가 일반은행의 모바일 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50·60대 이상 연령층 이용률은 각각 51.0%, 12.9%에 머물렀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 모바일 지급서비스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될수록 60대 이상 노령 소비자는 금융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 연구원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가 대안화되면서 노령소비자의 금융소외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 확대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정부는 고령소비자를 위해 투자자의 자유의사만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령소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슈를 과

악해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영국 등 외국은 금융상품이 고령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상품과 서비스가 고령층에 알맞게 고려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도 고령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고령소비자 자산확실성이 높고 건강관련 비용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고령소비자가 처한 환경을 파악해 고령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이 후에는 노령 소비자가 빠지기 쉬운 금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시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민병두 의원실

용착취 유형 등을 정리해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험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원은 “고령 소비자의 경우 상품보단 판매자와의 관계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마케팅교육과 핵심설명서 교육 등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고 판매자 보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소비자의 경우 보험상품 가입이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뤄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 연구원은 또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고령소비자 전용 앱을 마련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시장의 주된 수요층도 고령화됐다”며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건강나이를 이용한 보험료 할인과 고령자 전용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시니어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이순호 금융연구원,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변혜원 보험연구원 등 총 50명 가량이 참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국민연금 S코드, 안정·수익성 최우선 고려를”

기금운용 수익률 마이너스로 부진  
한경연, 의미 살리려면 독립성 필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침 관련 법령 및 판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하며,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함
헌법재판소 1996.10.4. 96헌가6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요청된다.” * 수익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본 소수의견도 제기되었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스트워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행사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부진하자 수익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기금손실평가액은 총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과 관훈 선문대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연금기금의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2019)’ 보고서에서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의결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배구조도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방향은 안정성, 수익성 확보로 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등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는 일부 주장에 국민연금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전면 반박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운영 주체는 투자전문가가 아닌 공공성과 중립성만을 고려한 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의 영향력과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주체로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투자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실제로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본 지침만 위탁기관에 제시할 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판단을 위탁기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았다.

한경연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잘못된 의결권 행사 조연이 있는 경우 피해는 주주가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 운용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익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정부, AI 활용 신약개발에 258억 투자

3년간 플랫폼 구축에 집중투자  
사업 성공엔 개발기간 절반으로

흥재단, 이화여자대학교 4개 팀이 연구를 수행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258억원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신약개발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가로 이루어진 6개 연구팀과 운영관리기관을 구성하고, 향후 3년간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다.

후보물질 도출,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정부는 기술개발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물질 발굴, 신약 재창출, 스마트 약물감시 3개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신약 개발의 첫 단계인,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을 돕는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아론티어, 중앙대학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화여자대학교 4개 팀이 연구를 수행한다.



아론티어는 서울 아산병원 유전체 데이터, 간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실험 데이터 활용해 폐암·뇌암 등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개발한다. 중앙대학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화합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치료의 단서가 되는 단백질을 예측하여, 퇴행성 뇌질환에 특화된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경북첨복재단은 재단 신약개발 지원센터의 선형 연구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고, 유한양행 등 주요 제약사의 화합물 데이터를 활용해 표적 항암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항암제, 섬유유 치료제를 연구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개발된 의약품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재창출’도 진행된다. 재창출 신약의 경우, 기존 임상 허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추가 임상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신약 재창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팀은 기존 약물 작용기전을 모사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검증 등을 통해 플랫폼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의약품 시판 후에야 이루어졌던 약물 감시체계도 보완된다. 서울 아산병원은 면역항암제 빅데이터를 집중 학습해, 약물 이상 반응의 조기 예측과 신속 대처를 한 약물 감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LGU+의 자신감... “이통3사 5G 블라인드테스트 하세요”

스타필드 하남에 체험존 마련  
스타데이트 등 VR·AR 콘텐츠  
선명도·실감도 파악 한 눈에  
9일 만에 방문자 7만5000명



스타필드 하남 중앙 광장에서 열린 5G 체험존에서 방문객들이 5G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13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 광장에 60평(198㎡) 규모의 5세대(5G) 이동통신 체험존이 열렸다. 5G 이동통신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가상·증강현실(VR·AR)이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체험존에 각 이동통신사 별로 VR·AR 콘텐츠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사 기술력을 뽐냈다. 5G 시장에서 후발 사업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해 5G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기준, 5G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세계스타필드와 제휴를 통해 하남점 중앙광장에서, 22일부터 내

달 14일까지는 고양점 중앙 광장에서 U+5G와 U+tv 체험존을 운영한다.

비교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이동통신 3사 모두 구비하고 있는 스타데이트, 음악방송, 웹툰 등이 갖춰져 있었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비교체험은 A사, B사, C사로 나뉘어져 있었다. 체험하고 즉석 투표를 하면, 바로

어떤사의 콘텐츠인지 공개된다. 특히 투명한 박스에 투표를 하게 해 방문객들이 바로 집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관계자는 “5G망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동통신사의 5G 초기 콘텐츠의 질을 직접 체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방문객들은 각 이통사

별로 5G 콘텐츠의 선명도, 구상도, 실감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는 형평성을 위해 모두 동일한 기가 와이파이를 이용한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가 체험한 콘텐츠는 스타데이트와 음악방송이었다. 우선 스타데이트 존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10초 정도 짧은 시간에 각 사별 콘텐츠를 비교해봤다.

A사에서는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모여있는 모습, B사에서는 손나은, C사에서는 갈대밭에서 아이돌 스타와 데이트를 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중 가장 화질이 또렷한 콘텐츠인 B사에 투표를 하고 앞에 놓인 카드를 뒤집으니 LG유플러스의 콘텐츠였다.

음악방송 콘텐츠는 아이돌들이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360도 가상현실로 즐길 수 있다. A사는 공원소녀, B사는 경리, C사는 원더나인의 아이들이 나왔다. 한 자리에서 각사의 콘텐츠를 비교

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웹툰은 LG유플러스와 KT의 콘텐츠만 구비됐다.

체험존 중간중간에서는 4개 체험을 마치고 스타필드를 받으면 블루마블 형식 ‘스타마블’ 판에서 주사위를 굴려 당첨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체험존은 12일 기준, 9일 만에 약 7만5000명이 방문했다. 주중에는 평균 7000명, 주말에는 평균 1만3000명이 찾았다.

LG유플러스는 자사 VR 플랫폼 ‘U+VR’ 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500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VR 제작기술을 보유한 ‘벤티VR’ 사에 투자를 완료하고 VR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형 팝업 스토어도 전국 축제, 야구장, 골프장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영화관과 쇼핑몰 등에서도 미니 팝업체험존을 통해 U+5G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린 AP 이노베이션 데이에 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 아모레퍼시픽그룹, 협업·상생경영 강화

‘제 2회 AP 이노베이션 데이’ 진행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10일~12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개최된 혁신 상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AP 이노베이션 데이(AP innovation day)를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제 2회를 맞이한 AP 이노베이션 데이는 제품 개발 파트너사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브랜드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 상품 개발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개방’을 기반으로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긴밀한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협업하는 등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강화하고자 했다. 올해는 지난 3일간 한국콜마, 코스온 등 29개 국내의 제품 개발 파트너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440여 개의 혁신 상품 후보들을 제안하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총 20개 브랜드의 마케터들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해 상품화를 논의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중시장 부진 현대·기아차, 신차로 정면돌파

판매율·점유율 일제히 하락세  
수익회복 위해 고정비용 최소화  
하반기 K3 등 신차로 반전 노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수 시장 점유율과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시장의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5월 중국 판매(도매 기준)는 각각 전년 대비 38.4%, 30.0% 줄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중국 시장에서 3만72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8.4% 급감한 수치다. 이 기간 시장 점유율은 3.3%에서 0.9%포인트 내린 2.4%로 집계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월(6만1027대) 이후 좀처럼 회복세를 보

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5만23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기아차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5월 2만1000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30.0% 감소했다. 시장 점유율은 0.2%포인트 떨어진 1.4%를 기록했다. 지난 3월 3만805대까지 판매가 증가한 이후 그다음달 2만3266대 등으로 판매 실적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수익성 회복을 위해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베이징현대에는 판매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지난달 베이징 1공장을 폐쇄했다. 1공장의 생산 물량 일부를 2·3공장으로 이전했지만 전반적인 부품 공급량도 줄었다는 게 현지 협력사의 전언이다.

기아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동평위에 다가아도 가동률 부진으로 장쑤성 연청 1공장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차를 출시한다. 현대·기아차는 하반기에 신형 iX25와 중국형 K3 등 신차를 투입해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KX3 신차와 KX5 부분변경 모델 등 SUV 중심 판매 모델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금융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하반기엔 소비진작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시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브랜드 재건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커뮤니케이션, 판매채널 강화, 상품 라인업 효율화 등을 검토해 계획을 세웠으며 한 단계씩 실현시키면 하반기부터 중장기적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FC, KT와 손잡고 ‘매장 에너지 효율화’

‘기가에너지 매니저프랜차이즈’ 계약

KFC가 지난 10일 국내 외식업계 최초로 KT와 ‘기가에너지 매니저 프랜차이즈’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 프랜차이즈’는 KT가 보유한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KT-MEG(Micro Energy Grid)’를 기반으로 매장시설 및 에너지를 실시간 관제하고 제어해주는 서비스로, KFC는 이번 계약을 통해 7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190여 개 매장에서 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

KFC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 프랜차이즈’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냉·난방기 및 간판 자동 제어, 쇼케이스, 냉장고 온도 관리를 통한 신선한 식재료 관리까지 매장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고객 응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그룹 내 대표주자 희비 엇갈려

신세계그룹인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으로 신세계백화점에 역전당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매지간인 이마트 책임자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경영 능력의 차이가 아니냐는 분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743억원으로 집계돼 신세계백화점의 법인명인 ㈜신세계의 1분기 영업이익 1100억원보다 350억원 이상 적었다.

이에 앞서 이마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신세계는 이보다 724억원이 많은 133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동안 신세계그룹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로 자리매김해온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신세계백화점에 역전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잇따라 3분기 연속 신세계백화점에 영업이익이 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이마트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가열돼 업계 간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할인점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마트가 지분을 투자한 SSG닷컴, 이마트24, 제주소주 등 종속회사의 실적이 부진한 것도 영업이익 악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와 반대로 ㈜신세계는 종속회사인 신세계디에프(면세점)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실적 호조를 보여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마트의 하반기 실적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기 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 호텔식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

## (로얄층)



침대,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렌지에서 에어프라이어 등 풀옵션 제공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호텔식 서비스는 유상제공 됩니다



호텔  
100%  
분양완료

**10년 전문**  
임대관리 업체 관리계약 체결!

\* 임대관리 계약은 스마트하우스 운영사인 일에셋마스터리스(주)와의 계약입니다.

**전주 최초**  
스마트하우스 직접 운영!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공실관리 OK!  
행정관리 OK!  
시설관리 OK!  
연체관리 OK!

## 공실과 수익률 걱정이 없이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가 직접관리

**전주 최초 호텔식  
서비스 제공 오피스텔!**

공실과 수익률 걱정없는 **전문 임대관리 업체 계약**  
베스트웨스턴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호텔식 조식서비스**  
마트와 재래시장상권을 한걸음에 누리는 **생활편의입지**

오피스텔과 호텔의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최고급 편의시설**  
명불허전! 걸어서 누리는 세계의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옆**  
전주 시청 인접으로 **풍부한 수요를 품은 직주근접**

시행사 **KAIT 한국자산신탁**    위탁사 **MERIT+PLUS DEVELOPMENT & MARKETING**    시공사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청약계약안내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9401-04-274501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청약금은 미계약시 전액환불해드립니다

한옥마을  
스마트하우스 **1522-1966**

● 분양신고 번호 : 2017-건축과-분양신고-7(2017. 11. 24) ● 건축허가 : 2017년 08월 22일  
● 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70012(한국자산신탁) ● 영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 준공예정일 : 2020년 9월 예정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반영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제공하며, 자판기 및 신차시인 한국자산신탁(주)는 무관 합니다. \* 전주 상백 및 천마강역 북원사당, 현정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장은 인, 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에는 이와 무관합니다. \* 수익분배금은 신사인 한국자산신탁(주)는 무관하여 시행사 메리트플러스에서 공중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콘티넨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 ‘안보이는 지식’에 투자해야”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강연

“데이터가 많아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등 산업이 영항받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의 자산에만 비용을 지불했다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창조적인 것에 투자해야 한다.”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에 참석해 ‘데이터, 자본주의의 진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송 부사장은 이날 ‘데이터 자본주의’란 서적을 토대로 새로운 물결인 데이터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대처해야 할 자세를 제시했다. 데이터 자본주의는 빅 데이터 분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KPC

데이터가 시장 활동의 추진체로서 돈을 대신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일컫는다. 거대 금융과 거대 기업이 아닌, 소규모 그룹과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무기로 기존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강자를 단숨에 뛰어넘기도 한다. 예컨대 포드 대신에 우버가, 하얏트 대신에 에어비앤비가 시장

플로피디스크 1만장이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15~20년 사이에 1만 배 이상의 집중도가 생겼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비용이 줄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데이터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1917년 미국의 상위 10개 회사는 주로 철강회사였지만 10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데이터 회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더이상 내수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원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똑한 인재만 있으면 무한한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는 데이터 자본주의의 긍정적 모습을

포드 대신 우버, 하얏트 대신 에어비앤비  
많은 데이터 가진 기업, 시장 이끄는 시대  
로봇 협업·창의적인 것에 가치 지불 중요  
비정형적·창조적인 것이 한국에 남아야



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와 이코노미스트 필자 토마스 람게가 쓴 책으로, 송 부사장은 이 책의 한국어판 감수를 맡으며 저자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근대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기업과 금융가들의 이야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데이터 혁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데이터 자본주의란

을 이끄는 상황이다.

이런 일은 데이터에 수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에 가능했다. 송 부사장은 “과거 플로피디스크에 문서를 저장했는데 저장용량이 1.44메가바이트에 불과했다”며 “오늘 들고 온 USB가 16기가바이트인데,

강조하기도 했다.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가격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인에게 ‘물건을 새로 샀는데 좀더라고요’라고 말하면 상대는 대부분 ‘얼마인데?’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격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되는 순간 상품이 가진 기존 가치가 잊혀진 채 물질주의가 가속화되어 허세나 불필요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이 쉬워졌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에어비앤비 사용자는 집을 이용하고 안 치우고 나오면 다음에 좋은 방을 얻을 수 없는데, 이용자가 서비스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이용자를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에 담긴 정보가 태도, 특징, 행동까지 연결된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사람들이 착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송 부사장은 엘빈 로스가 쓴 책 ‘매칭’을 인용해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금융 시장이 암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금융 시장이 가진 정보량이 데이터 시스템이 가진 정보량보다 적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계 최초의 무인매장 아마존고의 상점에 들어가 사람들이 물건을 집으면 배달해주고, 결제도 따로 필요 없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아마존고는 구매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어떤 물건을 고르는지, 물건을 들고 구매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등까지 파악한다. 금융이라는 시스템이 결

과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존은 과정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금융회사화되고 있는데, 이는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떻게 검색했는지, 어디 사는지, 배달 방법은 어떤지, 돈을 얼마나 빨리 냈는지 등을 통해 개인 신용에 대한 데이터를 자세히 구축해 기존 금융기관보다 훨씬 손실이 적은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는 데이터 자본주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로봇과의 협업과 창의적인 것에 대한 가치 지불을 강조했다. 송 부사장은 “오늘 아침 카카오톡에게 뉴스를 받았는데, 뉴스를 모아 제공하는 업체가 하던 일을 이미 로봇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나운서는 직업을 잃게 된다”며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일을 찾으며 로봇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물리적 형태에만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훌륭한 기술자들이 한국에 남기 어렵다”며 “비정형적이고 창조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해 훌륭한 친구들이 한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과거 3차산업혁명 전까지 원유가 경제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굉장한 힘을 갖게 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료가 데이터라고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과 화폐 기반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젠 데이터가 시장 활동의 추진체로서 돈을 대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LED가방·홀로그램... 中企 제품의 새면모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

우수 중기 제품, 유통망 연결 지원  
히든스타는 TV홈쇼핑 무료 방송도

“여기 화면이 잘 깨지지 않나요? KC 인증 같은 기본적인 인증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수출 가능한거고?”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마케팅 페어에서 주식회사 타바바의 부스를 찾은 바이어는 LED 가방을 유심히 살펴봤다. 백팩 가방 등에 부착된 LED 화면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무게나 소재는 어떤지 묻는 바이어에게 김연중 주식회사 타바바 최고생산책임자는 가방 소재와 사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타바바의 LED 가방 배누키는 지난달 출시됐다. 블루투스 가방과 전용 앱을 연결한 뒤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다. 커플러나 기업 광고를 할 수 있는 등 개성 있는 LED 가방이 된다. 자전거를 탈 때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해 자동차 감박이처럼 좌회전 우회전도 표시할 수 있다. 바이어는 한참 동안 이것저것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2019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한 마케팅 페어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망과 이어주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페어는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살균 쉬운 ‘케어팟 스테인리스 가습기’, 히든스타 선정

이번 마케팅 페어에는 총 217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했다.

이 중 단연 돋보인 것은 부대행사로 마련된 ‘히든스타 상품 공개 오디션’에 참가한 제품이었다. 히든스타 TOP5로 뽑혀 오디션에 무대에 오른 제품은 ▲헬스앤바이오의 ‘케어팟(Carepod) 스테인리스 가습기’ ▲오투에어의 ‘청풍쌍쌍’ ▲톰스의 ‘쓰봉’ ▲삼선교의 ‘멀티큐브 살균기’ ▲에이치에프인테리어의 ‘오렐리안 풍기인건 속옷세트’였다.

히든스타상품으로 헬스앤바이오의 ‘케어팟(스테인리스 가습기)’가 선정됐다. 치과 의사로 일하던 김형주 헬스앤바이오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큰 충격을 받아 세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가습기를 고민하다가

료도구처럼 가습기 수조나 뚜껑 등을 직접 삶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구조가 단순해 분리가 쉽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가습기를 삶아 살균할 수 있어 좋은 평은 받아 히든스타상품으로 선정됐다.

히든스타로 선정된 헬스앤바이오의 케어팟은 GS, CJ, 현대,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TV홈쇼핑에 판매 수수료 무료로 방송될 예정이다.

케어팟 가습기 외에도 폴라겐으로 만들어 90일 만에 분해되는 친환경 쓰레기 봉지인 톰스의 ‘쓰봉’, 세균 번식이 왕성한 욕실의 칫솔, 샤워타월 등을 살균·소독해주는 삼선교의 ‘멀티큐브 살균기’, 인건으로 만들어 시원한 에이치에프인테리어의 ‘오렐리안 풍기인건 속옷세트’,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선풍기 오투에어의 ‘청풍쌍쌍’ 등 제품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기술력 돋보이는 중소기업 명품관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명품관, 상생협력관, 디지털가전관, 생활용품관, 뷰티관 등 총 9개 전시관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VR, 홀로그램, IT 등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명품관에 참가한 제품이 눈에 띄었다.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2019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가 열렸다. /배한님 기자



아테크넷이 홀로그램 사진첩을 전시했다. /배한님 기자

아테크넷 부스의 홀로그램 기기는 많은 사람의 발을 멈추게 했다. 아테크넷은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기까지 함께 만든다. 이 두 가지를 한번에 제공하는 국내기업은 아테크넷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기업의 마케팅이나 박물관, 과학관 전시 등에 사용되는 B2

B 판매가 많았지만, 앞으로 소형 제품을 통해 BTS 같은 연예인의 영상이나, 홀로그램 액자 등 B2C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권정영 아테크넷 대표는 “홀로그램을 전시나 마케팅에 활용하다보니 참관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VR 쇼핑물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코넥엔터테인먼트도 부스를 내놓았다. 스코넥은 삼성이나 LG, KT 등 대기업의 제품에 VR 쇼핑물 솔루션을 구축해 준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맞춤형 VR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 현재 미래가능성을 보고 VR 쇼핑물 기술을 연구·개발(R&D) 중이다. 스코넥 송채훈 VR사업단 본부장은 “유통업체와 협업하면서 관계자들에게 홍보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 與 역대급 완승... 野 궤멸위기... 1년새 民心 얼마나 달라졌나

## 6·13 지방선거 1년

‘3선’ 박원순, 옥탑방 살이 등 행보 ‘보여주기식’ 지적 등 평가 엇갈려 교통사고 치사율 감소 등은 ‘만족’ 친형 강제입원, 배우와 스캔들 등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사고 줄이어 3대 무상복지·DMZ모노레일 추진



지난해 6월 13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지난달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뒀던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논스퀘어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유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대표 등의 원이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났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완전 승리를 거두며 지방권력까지 장악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궤멸했다.

민주당 완승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을 확보했고, 보수진영 지도부는 메가톤급 쓰나미를 정면으로 맞고 총사퇴했다.

메트로신문은 13일 6·13 지방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선거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짚어봤다.

### ◆與 ‘씩쓸이’... 한국당은 TK 배수진

민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수도권과 부산·경남(PK)에서 대승을 거뒀다. 서울(박원순)·경기(이재명)·인천(박남춘)·부산(오거돈)·경남(김경수)·울산(송철호) 등에서 당선자를 냈다.

중원 역시 대전(허태정)·충남(양승조)·충북(이시종)·세종(이춘희)도 파란색으로 덮였다. 민주평화당과 경쟁한 호남에서도 광주(이용섭)·전남(김영록)·전북(송하진) 지자체장 자리를 가져갔다. 보수세(勢)가 강한 강원(최문순)도 차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구(권영진)과 경북

(이철우)만 당선자를 냈고, 바른미래당은 전멸했다. 제주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구·시·군·의장 역시 226석 중 민주당이 151석을 석권했고, 한국당은 53석, 평화당 5석, 무소속이 17석을 가져갔다.

지선과 함께 치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전체 12곳 중 민주당이 11곳을 휩쓸었고, 한국당은 1곳만 가까스로 얻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참패 후 ‘보수재건’을 외쳤던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표는 투표 다음날인 1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쓸쓸히 퇴장했다. 홍 전 대표가 자리에서 내려온 후 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 ◆자원봉사에 노래까지... 여야 당대표 이색공약

지선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각자가 목표한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이룰 경우 이색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우세했던 민주당은 과격적인 공약을 내걸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다둥이네 가족을 방문해 일일 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에선 여성 의원 5명(백혜련·박경미·유은혜·진선미·이재정 의원)이 사전투표율 20%에 ‘파란머리’ 염색 공약을 하고 직접 인증하기도 했다.

한국당 홍 전 대표는 투표율 30%에 ‘아기상어춤’을 공약한데 이어,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이던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 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10곡을 부르고 춤도 추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여권 대선 잠룡 ‘시·도지사 3인방’은 지금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에서도 타이틀을 유지했다. 3선에 성공한 건 박 시장이 처음이다. 박 시장 스스로도 “조선시대 한성판윤까지 통틀어 최장수 시장”이라고 자부한다.

다만 박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이어졌던 강북구 옥탑방 살이는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옥탑방에서 나온 후 부동산 정책 관련 강북 개발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다. 그해 11월에는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기도 했다.

반면 보행자 중심 정책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감소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만족도 또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최

근에는 여당과 함께 ‘제로페이’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올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12만 곳을 넘은 상태다.

이재명 지사는 인구 1300만명의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난하게 당선됐다. 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 등 각종 의혹으로 법정까지 섰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전부 무죄 선고 이후 적극적인 도정운영에 나서고 있다.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비 ▲무상교육 지원사업 등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시리즈’로 꼽으며 사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한 경기도 지역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평화모노레일’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의 그림자 수행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박원순 시장과 ‘경남-서울 상생혁신’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지사를 댓글조작 관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4월 석방됐지만, 아직까지 위기는 남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 직을 잃는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방통위, 불법사이트 일방적차단 보완 마련

###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協 발족 심도있는 논의 위해 소위원회 운영

방통위 소위원회가 인터넷 규제 정책에 대해 소통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13일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터넷 규제에 바람직한 방향과 적절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규제 체계,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등이다.

협의회는 14인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계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학계 5인과 법조계 2인,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7인으로 꾸렸다.

방통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은 추후 합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첫번째 협의회는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최종 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용 기자 juk@

## 7개부처 합동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정부가 그동안 부처마다 따로 해오던 물놀이 안전관리를 7개 관계부처가 협력해 진행하도록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7개 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강이나 계곡 등 내수면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해왔고,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가, 수영장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담당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가 부처별 따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번 대책이 제기돼 왔다.

앞서 두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구성된 협의체는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이 주재하고 행안부, 해수부, 문화부, 환경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관련 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이들은 물놀이 철에 앞서 합동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홍보와 교육 등을 진

행하고, 물놀이 시즌이 끝나는 9월 이후에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할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 1202개소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해수욕장 271개소에는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고다발지역이나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해 사고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래디슨 블루 플라자호텔에서 양국 조선, 로봇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기업·기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노르웨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성 장관(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 한-노르웨이, 친환경·로봇개발 등 맞손

### 산업부, 양국 산업계 4건 MOU

한국과 노르웨이가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로봇 등 미래 핵심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산업계가 4건의 협력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MOU는 ▲자율운행 선박 개발 공동연구 합의서(삼성중공업)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MOU(삼성중공업)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 MOU(현대중공업) ▲유럽 로봇 시험·인증 협력 MOU(한국로봇산업진흥원)다. /석대성 기자

아울러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화물창 설계 시스템 일반 승인과 현대미포조선의 친환경 LNG 병커링선 기본 승인을 받았다.

노르웨이는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자재,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선박 기자재, 한국은 선박 수출에 강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조선 분야 협력 확대는 양측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노르웨이가 발주한 선박의 50% 이상을 한국이 수주했다.

# “학령 인구 준다고 교육투자 축소 안돼”

## 유은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효율성 논리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과감한 재정 확충·투자로 선순환을”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추진 재확인 현장 제언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교육 투자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시행을 재확인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확충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칭)’(이하 교육협의체)를 구성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협의체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유은혜 부총리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등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투자에 적

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예고된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고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전체 학년 도입에 필요한 2021년부터 1조 995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 제고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를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은평초 학생들과 인사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회교과 연계 의회 민주주의를 방청 온 서울은평초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취업난 심각해도 ‘면접 노쇼’ 여전

상반기 지원자 10명 중 3명 ‘노쇼’ 면접 불참 원인 1위 “묻지마 지원”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원자가 면접에 불참하는 ‘노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묻지마 지원이 늘고 그에 따라 면접 노쇼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사람이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558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면접 불참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에 따르면, 82.6%가 ‘면접에 불참한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상반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에 불참한 비율은 평균 31%였다. 지원자 10명 중 3명이 입사원서를 제출하고서도 면접에 불참하는 셈이다.

면접 불참자가 발생하는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묻지마 지원’(63.1%)을 1위로 꼽았다. 이외에 ‘기본적인 예의 부족’(41%), ‘취업 의지 부족’(39%), ‘기업 규모가 작아서’(28.6%)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 벤츠 그리려다 경운기 그린 軍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장병 취·창업 지원과 개인전투장비 현대화를 위해 육군과 국방부는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의 제도와 장비를 영동하게 베끼면 안 하니 못한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마치 벤츠를 가져다 놓고 투박한 경운기를 만는 것처럼...

육군은 지난해 7개부대에 시범 적용된 취·창업 동아리 지원 프로젝트 ‘청년 Dream, 육군드림’을 올해 2월부터 24개 부대로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문과 학기 기술 장교양성제도인 ‘탈피오트’가 롤모델이다. 앞서 국방부도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군과 국방부는 탈피오트제도를 거꾸로 접근했다. 이스라엘군은 야전환경에 부응하는 군사장비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제도를 도입했다. 장병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기업 80여개 중 상당수 기업의 대표가 탈피오트 출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성공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복무를 통해 체득한 군사적 경험을 살려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이다.

한 탈피오트 출신 기업인은 벽속 숨은 적을 찾기 위해 벽을 투과해 사람을 식별하는 장비를 제안했지만 이스라엘군에 채택되지 않았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야전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소방 및 산업현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으로 태어났다.

군의 존재목적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장병의 취·창업지원도 군사적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해야 하는 것이 취·창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취·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에 제약을 덜 받는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산업현장의 몫이다.

엄격하게 선발된 탈피오트요원들은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융복합교육을 받고, 야전부대에서 복무한다. 이들은 9년 동안 군에 복무하며, 야전에 필요한 참신한 장비들을 개발하거나, 개발 의견을 제안한다. 반면, 이·공계 학사들인 과학기술사관은 3년 간을 오롯이 ADD에서 복무한다. 더욱이 군장학금

을 받고도 연장복무도 없다. 나랏돈이 많은 것 같다.

지난 2017년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을 위해 ‘도전! K-스타트업 2017’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현역군인 팀은 얼어버리는 수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먹는 수액을 제안해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를 접한 한 미군은 “미국 코스트코에 팔리는 전해질제제를 한국에서는 상을 줄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노후된 개인전투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육군의 ‘위리어플랫폼’사업도 단일한 카피가 우려된다. 미국 C사의 장비를 거의 그대로 베껴낸 장비가 해외파병 부대에 보급됐기 때문이다.

방탄복의 한 종류인 플레이트 캐리어인 이 제품은 방탄판 규격이 외산과 달라 방탄판 삽입구가 뜯어졌다. 납품업체는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그런데 군과 방사청은 위리어플랫폼으로 방산수출을 기대한다. 노후장비의 적응성 있는 보급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장비의 수출. 어느쪽이 현실적일지 군 당국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captin@

## 대학가 소식

### 광운대 ‘디지털 영상편집실’ 개소

광운대학교는 지난 12일 오전 교내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영상편집실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유지상 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무위원이, 한국방송학회 주정민 회장 등 임원과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디지털 영상편집실은 지난 2월 한국방송학회와 롯데홈쇼핑이 진행한 대학 디지털 영상편집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다.

기존 광운영상방송센터는 SD급 방송 제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소로 UHD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 기존 강좌용 제작 스튜디오에서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가능한 크로마키 스튜디오로 조명장치가 구축됐다.

### 숙명여대

### 내일 모의논술 실시

숙명여자대학교는 오는 15일 ‘2020학년도 숙명여대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의논술은 논술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실시된다. 논술우수자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800명, 온라인 600명 등 1400명 내외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모의논술은 지난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 결과 인문계열 661명, 자연계열 138명이 최종 접수해 치른다. 온라인 모의논술은 사전접수 없이 15일~22일까지 접수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채점 결과는 내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제공된다. /한용수 기자

## 군인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

### 국방부, 의료시스템 개편안 발표 간부동행 없이 개인외출 때 가능 내년 시범사업, 점검 후 전면시행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밟아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군병원 진료 때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군 의료시스템 개혁과제가 시행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병의 민간병원 진료로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군 병원에 대한 신뢰부족 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의무대 1차 진료와 군병원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 부대지휘관 청원 휴가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는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부대지휘관 승인’ 절차로 간편해진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진료를 위한 간

부동행도 사라질 예정이다. 민간병원 외진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간부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병도 개인외출제도를 이용해 손쉽게 민간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되는 것이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방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병사들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

멀리 떨어진 군병원 대신 인근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을 권역·지역별 전문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는 위탁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현재 1개 팀에서 3개 팀(서부·동부·남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및 약전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 헬기도 2020년까지 8대가 추가배치돼 응급후송능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형철 기자

### 오투기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 모집

오투기가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 11기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투기 진라면 대학생 서포터즈 진앤지니는 진라면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진라면 맛의 강점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진앤지니 11기에 선발되는

총 30명의 대학생들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7주간 진라면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 진앤지니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4일에 발표된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NH농협은행, 조폐공사와 지역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NH농협은행은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대국민 디지털금융 편의 제고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농협은행 비대면계좌 개설 및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왼쪽)과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기아차, 초록여행 참가자 모집**  
기아차의 사회공헌사업 초록여행이 8월 미션여행 '준비했어요-산림농어촌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수도권과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초록여행의 사업 권역을 강원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왼쪽부터), 김인호 한국철도공사강원본부장, 김대식 기아차 전무, 김신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충의 사단법인 강릉시장애인법인단체연합회장, 김한근 강릉시장,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JW그룹, 독거노인 찾아 단오맛이 나눔 봉사활동**  
JW그룹 임직원들이 단오를 맞아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의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동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단오 맞이 나눔 DA Y'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등 임직원들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 20여 명은 앵두화채, 수리취떡으로 구성된 단오 전통 음식 30세트를 만들고 독거 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JW그룹



**금호타이어,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후원**  
금호타이어는 한국메세나협회 및 아츠커뮤니케이션21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후원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개운중학교에서 무용 및 시각예술 교육으로 구성된 진로체험교육 '예술로 하이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청소년 진로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에쓰오일 새 대표이사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에쓰오일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CEO(최고경영자)에 후세인 에이 알-카타니 사내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알-카타니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 사우디 아람코 쉘 정유

회사(SASREF) 대표이사를 맡았다. 알-카타니 대표는 글로벌 에너지석유 화학 산업의 전략적 성장과 개발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영활동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임 알-카타니 CEO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정연우기자 ywj964@

**주주총회 당일 변경, 적법하려면?**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Q.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소집 통지된 시각에 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처럼 2주 전에 통지를 하는 이유는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 해당 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해야 하는가? 그 방법은 어떻게 될까? 연기하지 않고 당일 시각을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적법한가?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집 통지했던 시간, 장소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연기 통지는 원래 개최하려던 총회일의 2주 전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해당총회의 연기를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해당 주주총회의 개최를 제안한 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그 연기의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판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위 판례의 사안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냈으며, 전보와 휴대전화(직접통화 또는 메시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철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해당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철회하기로 하는 결의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 연기 또는 철회의 통지가 적법한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것 없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한 시각, 장소와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한가? 먼저 판례는 주주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최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 개최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따라서 당초 통지된 시각보다 늦은 시각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총회 개최 시각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최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결국 주주총회의 개최시각과 개최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 주주총회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주주총회의 개최 시각, 개최장소 변경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고, 그에 따라 위법하게 변경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오늘 현충원서 엄수**

고문 141명, 장례위원 3300명

정치권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을 엄수한다.

이 여사 빈소인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3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여사 운구 행렬은 추모식 당일 오전 7시 신촌 장천교회에서 장례예배 후 동교동 사저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도착한다.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등 3인을 위촉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맡는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문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을 포함 141명을 구성했다. 장례위원은 총 3300명 규모로 민

주당과 평화당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했다. 사회장에는 한국당 원내대표단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석대성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인사**

◆ 한국딜로이트그룹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 파트너 승진 △ 공선희 △ 김재현 △ 박재철 △ 서규석 △ 양원제 △ 이룩영 △ 장문보 △ 조지훈 (이상 회계감사본부) △ 이성재 △ 이신호 △ 인영수 △ 임홍남 △ 정재필(이상 세무자문본부) △ 박승현 △ 임국진 △ 황지만(이상 재무자문본부) △ 김학범 △ 문범석(이상 리스크자문본부) △ 김민경(이상 위험관리본부) ◇ Principal 승진 △ 신금호 △ 지성원 △ 한유기(이상 회계감사본부) △ 최재석(이상 세무자

문본부) △ 염승원 △ 이종범(이상 재무자문본부) △ 강진우(이상 위험관리본부) △ 장현주(이상 커뮤니케이션전략실)

**부음**

▲ 김상남씨 별세, 박재범(자영업)씨 모친상, 이기섭(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전재호(합동참모본부 해군 대령)·김종일(자영업)씨 장모상, 이지연(중소기업중앙회 과장)씨 외조모상 = 13일 0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

일 오전 7시30분, 장지 국립 대전현충원. 02-2258-5940.

▲ 배소수씨 별세, 김홍식(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실장)씨 모친상, 변은영씨 시모상 = 13일,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2-923-4442.

▲ 허식씨 별세, 허은심·허윤경·허욱(이호산업개발 부장)·허은하씨 부친상, 김정현(미래일보 편집국장)·박우열(이호산업개발 대표)·정복수(이호산업개발 부장)씨 장인상 = 13일 오전 3시11분께, 인천 설악원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부평승화원. 032-548-1009.



# 물류·배송·멤버십 강화... 쿠팡의 진화는 여전히 'ing'

<진행중>



연면적 4만평의 고양물류센터 준비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클럽' 혜택 ↑

쿠팡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쿠팡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료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시 덕양구에 연면적 4만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가동을 준비 중이다.

쿠팡은 쉐달스퀘어가 지난 2월 완공한 7층 높이의 고양로지스틱스파크 물류센터를 임대해 가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올해 안에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물류센터의 높이는 아파트 20층에 달하며 연면적은 13만2231㎡(4만평)에 이른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고양물류센터에 근무할 안전 관리자를 비롯해 대규모 인력 채용 공고를 내고 정비 작업에 나섰다.

고양물류센터는 인천, 덕평처럼 메가물류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메가



쿠팡 김범석 대표.

/쿠팡



고양로지스틱스파크 조감도.

/쿠팡

물류센터는 택배사의 허브터미널 역할을 하는 곳이며, 지역 택배대리점은 '캠프'라고 부른다. 판매 상품 적재부터 재고 관리, 포장, 출하, 배송까지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13일 "물류센터의 오픈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물류센터가 오픈하면 물류 효율 향상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배송이나 신선식품 새벽배송이 가능한 품목도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쿠팡은 내년까지 물류센터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이트 내에서는 유료 멤버십 '로켓와우클럽' 혜택을 늘려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로켓와우클럽'은 고객이 가격 상관 없이 무조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고, 로켓상품은 30일 이내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 쿠팡은 현재 30일간 무료로 체험을 내세우며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다. 기간이 종료돼도 월회비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로켓와우클럽'의 가입자는 250만명을 돌파했다.

쿠팡은 6월부터 5% 캐시적립, 일부 상품 추가 할인쿠폰 제공 등 매월 새로운 회원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충성고객을 확보해 락-인 효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켓와우클럽' 역시 물류와 배송 인프라를 배경에 두고 있다.

배송 이외에도 쿠팡은 다양한 정보기술(IT)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물론, 하룻밤 새 고객의 주문이 두 배 늘어나도 순식간에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엔

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수준의 부정탐지시스템을 갖춘 쿠팡의 결제시스템은 고객이 단 한번의 터치만으로 쉽고 안전하게 연간 수조원 규모의 결제를 마치도록 돕는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전 세대를 합쳐 가장 많은 한국인이 이용한 쇼핑 앱은 쿠팡으로 4월 한 달 1066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4월 701만 명에서 올 4월에는 1066만 명으로 52% 성장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JAJU\_베트남 호치민 이온몰 매장.

/신세계인터내셔널

## JAJU, 베트남에 첫 해외점포... 시장 공략 박차

### 신세계인터내셔널

#### 호치민 이온몰 탄푸점에 1호점 오픈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생활용품 브랜드 자주(JAJU)로 베트남에 진출한다. JAJU가 해외에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이달 15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이온(AEON)몰 탄푸(TAN PHU)점 2층에 443㎡(134평) 규모로 매장을 오픈한다. 2014년 문을 연 이온몰 탄푸점은 올해 4월 신관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호치민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부상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연내 호치민에 2호점을 열며 점진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2017년 7월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TF를 만들고 오랜 기간 시장조사를 해왔으며, 지난해 6월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경제 성장률, 젊은 인구 비율,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을 글로벌 진출의 고득수로 삼기 위해서다.

JAJU 매장이 자리하는 이온몰 2층은 라이프스타일, 키즈, 푸드코트가 입점돼 있고, 신관과 구관이 연결돼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외선 차단 리뉴얼 및 리넨 소재 의류, 메이드인 코리아를 내세운 고품질의 주방제품,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아동 식기류와 아동 패션 제품을 주력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조인영 신세계인터내셔널 JAJU사업부장은 "자주는 베트남 유통업체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로 현지 고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뷰티, K패션처럼 K리빙의 영역이 글로벌로 확장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롯데홈쇼핑, 하절기 식품안전 관리 강화

### 자체적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 식중독 예방 위한 교육·컨설팅 진행

롯데홈쇼핑이 본격적인 기온 상승이 시작되는 하절기를 맞아 자체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 '대북영농조합'과 이전에 위치한 '하늘단'을 각각 방문해 하절기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강조하고, 생산라인 및 품질 검사 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대북영농조합과 하늘단은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김나운 김치', '김나운 LA갈비' 등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협력업체다.

롯데홈쇼핑은 이달 3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절기 식품안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냉장·냉동식품 협력업체의 생산·보관시설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살균, 소독법, 시설 및 설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가 지난 12일(수) 식품 협력업체 '하늘단'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위생 및 식품안전 점검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 조수영 울박스 대표, 이승훈 하늘단 회장. /롯데홈쇼핑

및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냉장·냉동식품 배송 시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 등 보냉제를 증량해 운송하며,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와 연계해 식중독균 검사 소요 기간을 두 배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암행 주문을 통한 상품 온도 및 신선도, 원산지, 미생물 검사 등 품질 점검도 강화한다.

/신원선 기자

### 유통 단신

## "냉방은 기본, 제습·공기 정화까지"... 스마트 에어컨 인기

### 날씨 이슈로 다기능 특화제품 주목



신세계 강남점 가전 매장.

/신세계백화점

장마철을 대비해 제습과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점점 더위가 빨라지면서 스마트냉방 가전 매출은 매년 높은 숫자로 신장 중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 달 간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의 경우 에어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뛰었다. 7월 성수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날씨 이슈가 겹치면서 공기 정화나 제

습 등 다양한 기능이 특화된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를 장착해 공기 정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에어컨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본점과 강남점에서는 14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2019년 신제품 특가로 판매하는 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주말 본매장을 방문하는 구매 고객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 CJ제일제당

#### '통오리 오븐구이' 신제품

CJ제일제당이 The더건강한 신제품 'The 더건강한통오리오븐구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리 고유의 고소함과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파인애플을 넣고 12시간 저온 숙성한 후 오븐에 구워 겉은 노릇하면서도 촉촉·담백한 육즙을 살려 훈제 오리 제품과 차별화시켰다. /박인용 기자



### 롯데제과

#### '모구모구 아이스' 출시

롯데제과가 인기 음료 '모구모구'를 튜브형 빙과 제품으로 선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모구모구 아이스' 2종은 리치아이스와 피치아이스로 구성됐다. 각각의 제품에는 리치 과즙 분말과 복숭아 농축액이 들어있어 진한 과일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아이스 속에 나타드 코코(코코넛 젤리)가 박혀있어 말랑말랑 씹히는 식감이 독특하다. /박인용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 토종 바이오시밀러 위상 높여 유럽서 임상 결과 공개 '주목'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들이 유럽 학회에서 국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에서 임상 결과를 나란히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자리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제품효능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 533명에 바이오시밀러로 투약을 변경하는 스위칭 결과,

6개월 경과 시점까지 임상적으로 약효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총 1461명의 에타너셉트, 인플릭시맵, 아달리무맵 처방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분석연구에 따르면, 처방 후 6개월 및 1년간의 치료 경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과 오리지널 제품군 간 질환 변동 수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상의학본부장 김철 전무는 "당사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가 의사들의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속 개발하여 유럽의 더 많은 환

자들이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자가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지속**  
**셀트리온**  
**임상 데이터로 학술 마케팅 돌입**

역질환 치료제 3종은 바이오젠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 첫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14만 5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처방됐다.

셀트리온은 인플릭시맵 피하주사 제형인 램시마SC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이번 학회에서 최초 공개했다.

램시마SC는 정맥주사 형태인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환자가 피부 아래 지방층에 자가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형으로 개량한 제품이다. 인플릭시맵 성분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 피하주사제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362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따르면 투여 30주까지 램시마SC와 램시마(정맥주사제형 IV) 투여군 간 유사한 안전성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램시마SC투여군에서 램

시마 IV 투여군 대비 근소하게 높은 효과를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발한 학술 마케팅에 돌입한 상태다.

셀트리온 임상개발본부 이상준 수석 부사장은 "이번 임상에서 램시마SC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편의성이 높은 또 다른 부가적 처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각종 의료비를 제거해 경제성을 충분히 갖춘 램시마SC를 세계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2분30초'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中에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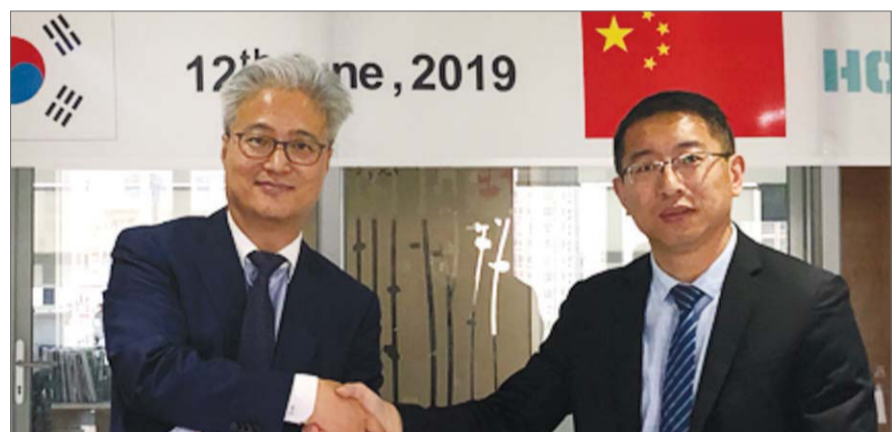
GC녹십자엠에스, 공급계약 체결  
고밀도·중성 지방까지 측정 가능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GC녹십자엠에스는 지난 12일 중국 호론(Horron)과 콜레스테롤 측정시스템 '그린케어 리피드'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호론은 체외진단장비 및 진단시약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중국 전역에 걸친 영업망을 통해 연평균 5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4년간 총 978만 달러(약 115억원) 규모이다. 계약에 따라 GC녹십자엠에스가 반제품 공급 및 기술을 제공하고, 호론이 현지조립생산(CKD) 및 판매를 담당한다.

'그린케어 리피드'는 혈액 샘플 채취 후 2분 30초 내에 총콜레스테롤(TC)과 고밀도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TG) 등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이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대표(왼쪽)와 잭 왕 호론 대표가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호론 본사에서 콜레스테롤 측정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와이파이 등이 지원돼 휴대성이 뛰어나고, 환자 데이터 저장도 쉬워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호론과 당화혈색소 측정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해 제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현장진단(POCT)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C녹십자엠에스 안은억 대표는 "지난해에 이은 이번 수출 계약을 통해 중

국 현장진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나갈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가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수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중국산업정보망에 따르면 중국의 현장진단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6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20% 이상 커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 6개월 체류 외국인, 건보료 11만원 낸다

다음달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화

다음달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으로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명의 외국

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만 부담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한 해 3000억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옥수수 수확하고 자연에서 놀아요"

광동제약, 가족환경캠프 참가자 모집

광동제약은 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제12회 옥수수가족환경 캠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월 2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에서 열린다. 야외 캠핑을 비롯해 옥수수 수확체험,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손두부 만들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쁜 일상과 자녀 양육으로 피로가 쌓인

부모를 위한 힐링 워크숍도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달 26일 까지 광동제약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회사 페이스북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동기와 광동 옥수수수염차 또는 옥수수와 관련된 간단한 사연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동제약은 심사를 통해 총 25가족(약 10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1일 회사 페이스북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광동제약이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배뇨장애 건강강좌 개최

이대서울병원

이 개원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중강당에서 '나이 들어도 배뇨장애 없이 스타일 있게 살고 싶다'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1호 여자 비뇨의학과 의사인 윤하나(사진) 교수가 강의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우산·타월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연세대

## 자체 플랫폼으로 '난청 치료제' 신약 개발

대웅제약이 자체개발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소음성 난청치료제 혁신신약(First-in-Class) 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오픈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연세대학교와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소음성 난청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 1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후보물질 도출 연구 개발비를 지원



받는다. 이온채널은 생체막내외의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로 이온의 이동은 생체에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고 신경 흥분 등 많은 신호전달에 관여해 신경계 질환, 암 등 다양한 질환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이세경 기자

# LG디스플레이 노조, 베트남·캄보디아서 봉사활동

## 열악한 학습시설·위생 환경 개선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6년 연속 해외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USR(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 300여명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릴레이 방식으로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열악한 학습 시설 및 위생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 모두 유명한 관광 도시지만 도심지를 조금만 벗어나도 학교 수가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다. 이에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매년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 도서관 건립, 교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캄보디아 주민 및 초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릴레이 방식으로 캄보디아 씨엠립과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열악한 학습 시설 및 위생 환경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LG디스플레이

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검진도 지원했다. 자외선이 강한 열대기후 특성상 백내장 등 안과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검진을 받은 모두에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선글라스를 제공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무료로 수술도 지원한다. /구세원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동부제철, 포스코와 누적거래 3000만톤 달성

포스코가 12일 포스코센터에서 동부제철 최고 경영진을 초청해 거래누계 3000만톤 달성 기념행사를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등 양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향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동부제철은 냉연과 도금강판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며 냉연의 원소재인 열연

을 포스코로부터 매년 약 80만 톤 구입하는 포스코의 대형 고객사 중 하나다. 동부제철은 포스코와 1973년 4만톤 거래를 시작한 후 돈독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거래 46년 만인 올해 거래누계 3000만톤을 달성했다.

이번 동부제철의 누적 거래 3000만톤은 단일 고객사로서는 최초 기록으로 올해 포스코 국내 생산량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김민중 동부제철 부장, 천성래 포스코 열연선재마케팅실장, 유홍섭 동부제철 부사장, 장인화 포스코 철강부부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정택 포스코 마케팅본부장, 김중환 동부제철 상무, 이영우 포스코 열연판매그룹장이 포스코와 동부제철의 거래누계 3천만톤 달성 행사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포스코

# 최종구 출마설



## 기지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요즘 왜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요즘 금융업계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모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다. 최근 최종구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출마설이 설(說)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이다.

본격적으로 출마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최 위원장이 강원 고성 산불현장을 찾으면서다. 최 위원장의 고향은 강원도다. 본관이 강릉이고 지역 명문고인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만큼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최 위원장이 강원 산불현장을 찾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서다.

최 위원장의 출마를 점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쏘카(SOCAR), 키코(KIKO)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와 쏘카·타다 사이 갈등을 놓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0일에는 키코 사태에 대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한다”며 키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전광우, 진동수, 김석동, 신제윤, 임종룡 등 역대 금융위원장 중 최 위원장처럼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인물은 거의 없었다. 또 최 위원장은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30년 이상 관직에만 있었고 말을 아끼는 관료로 평가돼 왔다. 그랬던 최 위원장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출마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안타까운 것은 최 위원장의 출마설로 금융위 이슈가 정치화되고 금융당국 수장의 출마 여부에 시선이 너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1년 넘게 남았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시 내세웠던 생산적·포용적 금융은 어디로 갔을까. /hj89@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구름 속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 48년생 만나서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0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다. 72년생 심심은 고단한데 재물은 들어온다. 84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거칠 것 없다.
- 소**  37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49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라. 6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 73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85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에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 호랑이**  38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한다.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해야 한다. 74년생 움직이는 순간 성공이 시작된다. 86년생 저물적인 일 처리로 남의 원망을 살 수 있다.
- 토끼**  39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51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상대도 설득할 수 있다. 63년생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5년생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 87년생 실망하기는 이리니 여유를 갖고 다시 대응.
- 원숭이**  40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에 좋다. 52년생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니 마음이 싱싱생생. 6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즐거운 날. 76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8년생 마음을 굳건히.
- 뱀**  41년생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5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77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89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말**  42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54년생 대목장 집에 기둥이 휘었다더니 주변부터 살파라. 66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9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
- 양**  43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라. 55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어딜 가나 대접받게 한다. 67년생 내가 편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간다. 79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1년생 주변에 시샘하는 사람이 많다.
- 원숭이**  44년생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흔들려댄다. 56년생 정보를 잘못 알 수도 있으니 공부하라. 68년생 주변의 실수를 포용하라. 80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생긴다. 92년생 하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를 높인다.
- 닭**  45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는다. 57년생 간소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9년생 지인 관리를 잘 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1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3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 개**  46년생 공기가 좋으니 여행을 떠나보라. 58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70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82년생 눈앞의 이익보다 내일을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94년생 내가 높은 곳에 내가 걸린다.
- 돼지**  47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 59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도를 벗어나 체면이 구겨진다. 71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3년생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9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성실로 극복.



## 김상회의四季

### 가정의 평화를 부르는 관음기도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있다.’ 톨스토이가 쓴 명작 고전 ‘안나카레니나’의 첫 문장은 작품만큼이나 유명하다. 이 문장이 말해주듯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나름대로의 문제거리를 하나 또는 몇 개씩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평화로우 보이는 가정도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매일 아침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하고 싶어요.” 가정불화로 고민이 많은 사람이 하던 말이다. 그는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를 찾아 진짜 기도를 올리고 싶다고 했다. 몇 달의 기도 끝에 다행스럽게 불화가 잦아들었고 크게 만족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굳는다.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랑받지 못하고 차가운 집안 공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형제자매 간 충돌도 흔한 일이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입원하자 간병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던 가정이 대표적이다. 형제자매 사이를 좋게 되돌리려고 장남이 택한 방법은 관음기도였다. 관음보살은 크나 큰 자비심으로 서원하는 보살인데 공덕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닥친 당장의 힘겨움을 덜어준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을 때 관음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법화경에는 관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흉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악귀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 다툼에서 벗어나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우환이 줄어들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4	9	7	8	5	
1	5							7
	7			2			8	5
	6		5	8	3			9
		4			3			9
		8		4			5	6
9		1	7	5				
			2		3			9
		6		2		9		1
		3					5	
	5		3			1		6
1	7							2
			6	8		2	1	
		8						9
3	9		1		4			8

스도쿠 정답

8	7	2	5	1	4	6	9	
9	5	6	7	3	8	1	2	
1	6	4	9	8	7	5	3	
6	1	8	5	9	2	7		
5	8	7	1	9	4	6		
2	9	3	6	5	1	8		
3	5	8	4	6	7	9		
9	6	1	8	5	2	7		
7	4	1	9	2	6	8	5	
5	8	7	9	1	2	6		
6	7	9	4	5	1	3		
4	8	1	2	6	8	9	7	
9	2	8	9	5	6	7	1	
7	9	4	1	8	6	5	2	
1	6	5	2	7	4	9		
8	1	9	6	7	3	5	8	
9	5	6	8	4	2	1	7	
2	7	3	5	1	9	8	6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22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324호

#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파 니엔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위)파 니엔테 와이너리. (아래 왼쪽부터)파 니엔테 샤도네이,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 이탈리아말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라는 의미다. 와이너리를 정비하던 중 건물 전면 돌에서 발견된 이 문구는 그대로 와이너리의 이름이 됐다. 미국 나파밸리 오크빌에 위치한 와이너리 ‘파 니엔테’다.

파 니엔테가 처음 설립된 때는 1885년이다. 1919년 미국 금주령으로 폐쇄됐던 와이너리는 1979년 지금의 소유주인 길 니켈이 인수해 재건에 나서면서 나파밸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와이너리로 손꼽히는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파 니엔테는 와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인 ‘아무 근심, 걱정 없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와인 스타일로도 그대로 구현됐다. 과한 간섭보다는 아무것도 안하니 오히려 순수한 최고의 맛이 나오더라 얘기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파니엔테 브루스 무어스 사장(사진)은 “파니엔테 샤도네이는 버터나 오크 풍미가 유독 강조된 다른 나파밸리 샤도네이와는 다르다”며 “생동감 있는 산미와 함께 좋



파니엔테 브루스 무어스 사장

은 유질감을 지니고 있어 장기 숙성력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는 샤도네이 품종으로만 만들지만 3개 포도밭에서 나눠 재배한다. 각각의 밭에서 나온 포도의 블렌딩이 중요하다 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즙을 대량으로 벌크 마켓에 팔아버리기도 한다.

‘파 니엔테 샤도네이 2011’은 잘 익어 즙이 풍부한 배를 비롯한 열대과일 느낌은 물론 입안에서는 풍만하면서도 둥글게 모아졌다. 단단하면서도 잘 짜여진 구조로 균형감도 뛰어나다.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프랑스 보르도풍 블렌드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을 85~90%까지 주로 쓰지만 멀룩과 카버네프랑, 뽀피베르도를 섞어 정교한 맛을 낸다.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빈티지별로는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다. 파 니엔테 뿐만

아니라 나파밸리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뀐 탓이다. 90년대 중반은 이전까지는 보르도 스타일로 만드는 것을 최고로 여겼지만 이후에는 이른바 ‘나파 스타일’이 고객을 들기 시작한 시기다. 90년대 중반 빈티지가 좋았던 것도 한 몫을 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좀 더 늦게 수확에 나서면서 완숙미가 더 좋아졌다.

그는 “파 니엔테 카버네 소비뇽은 7~8년이 지났을 때가 가장 마시기 좋을 시기”라며 “검은 과일 느낌과 함께 오크 풍미도 있지만 절대 압도하지 않는 우아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체리와 블랙베리 등의 향이 풍부하며 벨벳같은 표현이 딱 맞을 타닌과 우아한 질감을 가졌다. 첫 입에서는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파밸리 지역의 와인답게 충분한 힘도 받쳐준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삼겹살 먹어도 ‘새빨간 입술’ 그대로? 틴트, 착 붙는 컬러에 지속력 느껴봐!

## 트렌드 Pick!

### 에뛰드 ‘컬러풀 타투 틴트’

틴트 매니아 사이 입소문 이미 퍼져 다양한 장점 중 ‘가성비’ 매력 가장 커 향·발리는 양 탓에 호불호 갈리기도

‘얼죽아’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줄인 말로, 추운 날에도 차가운 음료를 고집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렇듯 사람들은 어떤 한 부분에서 자신의 취향이 확고하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기자는 소위 ‘틴트파’다. 이십대 중반이 넘어갈 때쯤 립스틱으로 옮겨볼까 했지만, 결국 들고 돌아 다시 틴트로 돌아왔다.

틴트를 즐겨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립스틱보다 덧바르기 편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평소 무언가 바르지 않으면 ‘어디 아프냐’는 질문을 꼭 들을 정도로 입술색이 없는 데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 립을 잘 발라두어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또 다시 ‘아프냐’는 질문을 들을 정도로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일상이었다.

좋은 틴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 최근 입술색 없는 동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탄 제품이 있다고 해서 직접 써봤다. 바로 에뛰드의 ‘컬러풀 타투 틴트’다.

### ◆밥은 먹어도 입술은 안 먹는다

기자가 쓴 제품은 에뛰드 ‘컬러풀 타투 틴트’ 중 ‘마이 매드니스’ 컬러다. 처음으로 사용한 날, 리뷰용 수첩에 기록해둔 후기는 “삼겹살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았다”였다.

에뛰드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컬러를 자석처럼 입술에 밀착시켜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는 초밀착 세미 벨벳 틴트다.

그 말처럼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속력이다. 타사 제품 중 지속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몇몇 제품에 견주어도 될 정도라는 게 개인적인 평이다.

일례로, 기자는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던 날 제품 리뷰를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삼겹살을 먹기 전, 다 같이 해당 제품을 입술에 발랐다. 그 결과, 1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생기있는 입술이 유지됐다.

### ◆자연스러운 착색, 가성비 ‘Good’

이 제품은 지속력뿐만 아니라 다양



타투처럼 또렷하게 연출해주는 비블립

한 장점으로 ‘가성비’를 충족한다. 지속력이 좋은 타사 제품의 경우 과한 착색이 생기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술 안쪽 라인만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제품은 자연스러운 색으로 착색된다.

또한, 각질 부각이나 입술 주름 사이에 끼임이 적다. 잔주름이 많은 손바닥에 제품을 발라보니 끼임 없이 매끈하고 촉촉하게 발랐다. 또, 몇 번 문질러 주니 뽀송뽀송하면서 색상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또한, 틴트의 애플리케이션은 끝부분이 뾰족한 퍼프 타입으로, 그라데이션하기에 좋다.

기자를 포함해 틴트를 체험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단점은 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 이로 인해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이 발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은 긍정적이었다. 비슷한 장점의 타사 유명 제품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가 뛰어난 만큼 재구매 의사는 90%다. 컬러는 총 10가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에뛰드 ‘컬러풀 타투 틴트’를 잔주름이 많은 손바닥에 발라봤다. 처음 발랐을 때와 한 번 문질렀을 때(위 왼쪽과 오른쪽), 여러 번 문질렀을 때와 물로 씻은 뒤(아래 왼쪽과 오른쪽)다. /김민서 기자

# 모닝해즈, 여름 겨냥 ‘흑당’ 음료 5종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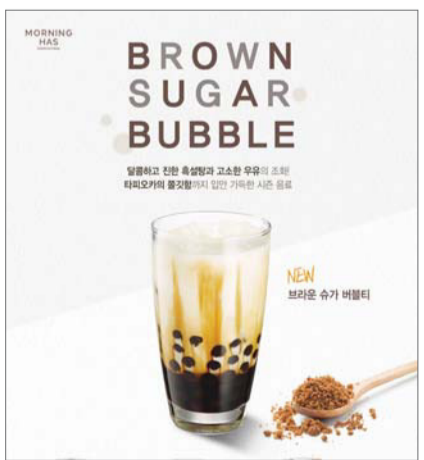
CJ프레시웨이 푸드서비스 전용 카페

CJ프레시웨이의 푸드서비스 전용 카페 ‘모닝해즈’에서 여름 시즌을 겨냥한 음료 5종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닝해즈’는 오피스, 골프장, 컨디션 등 단체급식 경로에서 CJ프레시웨이 운영 중인 푸드서비스 전용 카페 브랜드다. CJ프레시웨이는 점포 내 전문 카페 운영을 통해 음료, 후식류에 대한 메뉴 서비스 강화는 물론 식사와 후식을 한 공간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

이번에 ‘모닝해즈’에서 선보이는 음료는 ‘브라운 슈가 라떼’, ‘브라운 슈가 버블티’ 등 총 5종이다.

‘브라운 슈가 라떼’, ‘브라운 슈가 버블티’에는 올 여름 식음료 트렌드로 꼽히며 2030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흑당(黑糖)’을 사용했다. 달콤



하고 진한 흑설탕이 에스프레소와 고소한 우유를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조화를 각각 즐길 수 있다. 또한 향차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밀크 버블티’, 녹차맛이 매력적인 ‘그린 버블티’,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타로 버블티’ 등 타피오카 펄이 가득한 3가지 버블티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세븐일레븐

### ‘2%’ 아이스크림 선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여러 카테고리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상품의 인기로 따라 스테디셀러 음료를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 시켜 선보인다.

13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6월 12일까지 전체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 이 가운데 기존 카테고리를 벗어나 아이스크림으로 새롭게 출시된 상품의 매출은 49.3% 증가했다.

전체 아이스크림 매출에서 크로스오버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0.8%에서 올해는 20.4%까지 크게 높아졌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롯데푸드와 함께 스테디셀러음료인 ‘2%아쿠아’, ‘2%복숭아’를 하절기 수요가 높은 펜슬류(일명 쭈쭈바류) 및 컵류 상품으로 재탄생 시켜 단독 선보였다. /김민서 기자

#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향식이 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북항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열렸다. 취향식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취향을 알리는 버튼을 점화하고 있다. /전남도

##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향... 첨단장비 구비

단속 역량 강화·해역 활동 확대 기대

국가어업지도선 5척이 13일 목포 북항 전용부두에서 취향했다.

이번에 취향한 5척 가운데 무궁화 14호(1000t급)는 기존 노후 지도선을 대체해 건조된 것이다. 무궁화 35·36·37·38호 등 4척(2000t급)은 새로 건조했다. 고성능 카메라 등 최첨단 항해·통신 장비를 갖춰 기동성과 활동 역량을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이 34척에서 38척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어업 지도단속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2000t급 대형어업지도선이 5척에서 9척으로 늘어나 원거리 취향 해역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과 외국 어선 조업 질서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취향식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광병선 군산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새로 투입되는 국가어업지도선들이 어업인 안전조업과 수산자원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장관은 취향식에 이어 지역 해양수산 업체·단체장, 기관장과 오찬을 하며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오후에는 목포 달리도 항을 찾아 어촌뉴딜 300 사업과 도서 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목포수산물지원센터를 방문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목포수산물수출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들었다. /목포=양수영 기자 ysn6313@

## 광주교육연수원 전국구 우수강사 인력풀 구축

강사·교직원 발굴 프로젝트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 시교육청과 관내 학교, 전국 시도교육연수원에서 활동할 '우수강사' 인력풀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굴 프로젝트는 각급 학교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현장맞춤형연수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수강사를 섭외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내실 있는 연수 운영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은 광주교육 철학을 이해하고 있으며 교직원 연수에서 실천 역량을 발휘하고 있거나 학교는 물론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강사나 관내 역량 있는 교직원이 있다면 기관과 학교, 동료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받은 강사는 자체 심의위원



광주교육연수원 청사.

회를 거쳐 선정하며, 개인정보 동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수강사 인력풀'로 등재한다. 등재한 우수강사는 향후 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교육연수원 우수강사로도 추천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은 서로 우수강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추천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현재 접수 중이다. 추천할 강사가 있는 경우 광주교육연수원 임승현 연구사 내부메일로 추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광주=봉채영 기자

#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영암서 개최

국내 최대 프로 모터스포츠 경기 국제자동차경주장서 3일간 열려  
포 유일 스톡카 경주 'ASA6000' 결승전·증강현실 등 즐길 수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 모터스포츠 경기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전이 14일부터 3일간 영암 소재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상위 클래스이자 아시아 유일의 스톡카 경주인 'ASA 6000'을 비롯해 투어링카 레이싱인 'GT 클래스', 고성능 차량인 M4 쿠페로 구성된 'BMW M 클래스',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디컬 컵 아시아' 시리즈 등 5개 클래스 96대가 참가한다.

'ASA 6000'은 아시아 유일 스톡카 경주다. 2008년 시작된 이래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톡카는 오직 레이스를 위해 제작된 차량이다. 436마력 6200cc 엔진이 탑재돼 화려한 배기음과 스피드를 자랑한다.

'GT 클래스'는 다양한 양산차를 기반으로 엔진 배기량과 출력 규정에 따라 개조된 차량들이 참가한다. 차량의 튜닝 성능과 선수의 실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ASA 6000 클래스 경기장면.

일반인은 결승전이 펼쳐지는 16일만 관람이 가능하다. 포물리카를 축소해 놓은 듯한 외관의 레디컬카가 참가하는 '레디컬 컵 코리아'를 비롯해 450마력의 M4 쿠페 차량만이 참가하는 'BMW M 클래스'와 2019년 새롭게 시작된 '미니 챌린지 클래스' 등 다양한 차량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터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해 대회 후원사의 홍보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됐다.

ASA 6000 클래스에 출전하는 차량과 선수를 경기장 곳곳에서 증강현실(AR)로 만날 수 있으며, 한국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조항우 등 6명의 선수가 드를 모으면 실물카드 한 짝을 선물로 증정한다.

레이싱 시뮬레이터에서 가상현실(VR)을 통한 가상 경주를 즐길 수 있고, 전기카트를 활용한 드라이빙 스쿨에서 코스를 완주하면 어린이들만의 면허증인 '키즈 라이선스'도 획득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된다. KBS 1TV, KBSN 스포츠에션 하이라이트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대회 관련 자세한 정보는 CJ슈퍼레이스 공식 누리집(www.super-rac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영암=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롯데百貨, 전남道 손잡고 '남도 직거래 장터' 개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 힘써  
산지 직거래로 최대 50% 저렴

롯데백화점이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상생의 장인 남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롯데 아울렛수원점 1층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 20개 시·군 자치 단체장의 추천 상품을 산지 직거래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가 직접 인증한 우수 생산자 90명이 다양한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번 남도 직거래 장터는 농·수산물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입지가 좁아지고



13일 롯데아울렛수원점 1층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는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남도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과 전라남도가 의기투합해서 성사 되었으며, 롯데백화점은 행사장 조성, 판매부스 설치 등 지역 생산자들의 판매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사기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무안양파, 곡성멜론, 완도전복, 영광굴비 등 지역 대표 농·수

산물 700여가지 품목을 선보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산지 직거래로 시중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전라남도 농식품 유통과 이호재 주무관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롯데백화점과 더욱 협력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인기 먹거리 코너도 운영된다. 곡성장미축제 인기 먹거리인 토란과이, 완도전복만두, 진도전빵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별도 시식행사도 진행 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역 입점 백화점에 단기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4일 (금)  
음력 : 5월 12일

수도권 날씨  
27~18°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0 | 해질 / 19:54

연천 14/27  
동두천 15/27  
가평 14/27  
파주 15/26  
서울 18/27  
양평 17/27  
인천 18/24  
수원 17/26  
용인 17/26  
평택 16/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창원·진주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 선정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주상평일반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관리공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8억 원씩을 지원받는다

창원국가산단은 '동남 1980'이란 주제로 70억 원을 들여 동남전시장 내 건물을 다시 고쳐 클라이밍 체력장과 작은 미술관, 다목적문화공간 등을 만들 예정이다. 또, 45억 원이 투입되는 진주상평일반산단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에 지상 2층 규모로, 컨벤션홀과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경남=이경화 기자



금호타이어, 수영대회 입장권 구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청 3층 접견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조강조 생산기술본부장, 황호길 광주공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3000만원 어치 구매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금호타이어

# “2327억 투입 강동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방식 변경”

## 박원순 시장 시정질의

설계적합최저가→가중치 기준  
기술적인 측면 고려해 턴키 채택  
9월 입찰, 내년 4월 낙찰자 선정  
강북구 종암로에 BRT 확대 설치

서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설계적합최저가 결정방법이 기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에서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가중치기준 방식 적용 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비율은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는 고덕·강일 지구 등 강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적환 등을 위해 서울시가 고덕동 아리수로87길 272 일원에 4만 2553㎡ 규모로 건립 추진 중인 자원처리 시설이다. 사업비로 총 2327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해당 사업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으로 진행하고, 낙찰자 선정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입찰 참여 업체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됐다.

김수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설계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공사에 적용된 사



박원순 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례가 많지 않다”며 “발주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그렇지 못해 유찰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턴키 방식을 지양하고 있지만 고기술, 사후 관리 책임성 등을 고려해 강동구청과 전문가의견을 수렴, 부득이하게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며 “다만 턴키 방식을 적용했을 때 대형공사 사업자 위주의 독과점,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은 가격을 최대한 낮춰 예산을 줄이면서도 기술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최적

의 안이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서울시가 턴키를 원칙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던 방침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황 본부장은 “강동구에서 턴키로 제안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강동구는 복합공정, 성능보존, 책임소재 단일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턴키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 턴키를 채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 황 본부장은 “발주방식은 기존의 턴키는 그대로 준수하되 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을 가중치기준적정

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가중치는 심의위에서 정하겠지만 기술성과 가격 기준을 각각 6대4 또는 7대3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턴키방식은 일반 분리발주보다 유찰률은 높지만 실시설계 중 공사를 바로 진행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찰 절차를 9월 중 진행, 내년 4월까지 낙찰자 선정을 끝내고 2024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유찰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주방식을 바꿔 추진해 공사 지연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턴키는 이번 공사의 성질상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성능보존이 필요한 경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길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혈세가 잘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아 연구직 확충이 아닌 해외연수에 사용하는 등 방만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해도 운영 통제수단이 전혀 없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지방세·지방재정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688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거뒀다. 서울시 본청에서 140억원, 자치구에서 28억원 등 총 출연금의 24.5%를 시가 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돈은 지방정부에서 받아가는데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으로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게 맞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형태가 가장 전형적으로 지방분권의 철학을 도모시키는 사례”라며 “적극적으로 법령 체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또 “강북구 미아사거리와 종암사거리가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지옥으로 유명하다”며 “특히 미아사거리의 경우 2009년 서울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시장은 “종암로 복지병원 앞에 BRT 확대 설치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부터 시작, 내년 4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BRT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지하철기지서 701가구 태양광 전력 생산

서울시 방화 등 차량기지 4곳에  
2162kW 규모 ‘태양광발전소’  
월 208MWh 전력 생산 기대

서울 지하철 차량기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방화·모란·천왕·고덕 지하철 차량기지 4개소 정비고 지붕에 216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신정·도봉·수서 등에 설치된 9개소(총 6732kW)에 이어 총 13곳으로 확대된다.

시는 방화·모란기지에 총 1010k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다.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 연내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내년 3월에는 천왕·고덕 기지 옥상에 1152kW 규모의 설비를 설치해 같은 해 6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기지 4곳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이 완료되면 매달 약 208M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서울 지역 701가구가 한 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일반 가정 월평균 전력 사용량 296kWh)과 맞먹는다.

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20년 이상 된 노후 지붕도 함께 보수한다. 그동안 차량기지 정비고(옥상)는 지붕이 낡아 빗물이 유입돼 누수가 발생하고 지붕 자재의 부식이 심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은 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차량기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부지를 임대, 태양광 패널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사업을 총괄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시행 방안을 수립, 양공공간 소통을 돕는다.

김원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태양광은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로 꼽힌다”며 “서울에 소재한 정부기관, 민간 등과의 협업을 통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강북구 삼양동 빈집 3채 청년위한 공간으로 변신

서울시는 강북구 삼양동의 빈집 3채를 청년주택과 청년거점시설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6~7월 중 공사를 시작해 연내 준공한다는 목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 후 증·개축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나 지역에 필요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빈집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침체된 저층주거지 주변이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강원 산불’ 산림피해지 복구 나서

경관 복구 등 거쳐 ‘서울의 숲’ 조성

서울시는 강원도 산불 산림피해지안에 ‘서울의 숲’을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황폐화된 산림을 신속히 복구하고 강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전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산림청-강원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산림피해지 복구를 위한 ‘서울의 숲’ 조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복구 관련 기술과 행정을 지원하고 전국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한

다. 강원도는 숲을 만들 대상지를 제공하고 조성 후 유지 관리를 맡는다.

서울의 숲 조성은 관광지 주변 등 시급하게 경관 복구가 필요한 국·공유림에서 우선 진행한다. 시는 11월 서울시민, 강원도민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전국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하루빨리 강원도 산불 피해지가 복구돼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수원시 ‘세계화장실 리더스 포럼·컨퍼런스’ 개막 제6회 세계화장실 리더스 포럼과 콘퍼런스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시를 비롯해 세계 17개국에서 온 32명의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 경기도, 부적정 아파트 관리사례 47건 적발

수사의뢰 3건·자격정지 1건 등 조치

아파트단지 내 운동시설을 외부 위탁 관리에 맡겨 임대료를 받거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단체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2~4월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 이상 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

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의뢰 3건, 자격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명령 10건, 타법조치 1건, 행정지도 10건 조치했다.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사업자는 입주자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으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9@



[산업]  
황창규 KT회장  
FAO 컨퍼런스서  
기조연설  
06



Life

[라이프]  
쿠팡  
물류·배송·멤버십 강화  
진화는 여전히 'ing'  
L1



# 돼지해에 태어난 국내 최초 크런치바 돼지콘·돼지바 핫도그까지... 국민 하드의 '무한변신'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푸드 '돼지바'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도, 돼지 모양도 아니다. 단지 초코 크런치와 딸기시럽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왜 '돼지바'가 됐을까. 돼지바가 36년전인 1983년 돼지해(癸亥年, 검은 돼지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크런치바로 출시돼 풍성하고 복된 이미지를 담아 '돼지바'로 이름 붙여졌다.

출시 당시만해도 아이스크림에 '돼지'라는 단어를 붙여 부르는 것이 어색해 전국의 지점장들을 비롯해 사내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 크런치가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크런치바'라는 이름이 돼지바와 경쟁했으나 당시 대표이사 의 강력한 의지로 돼지바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크런치와 딸기시럽의 조화가 돼지바로 대표되게 됐다.

### ◆돼지바의 탄생

돼지바가 처음 태어난 1983년 당시에는 아이스크림 바 종류에 크런치나 딸기잼 같은 타 식품이 첨가된 제품이 없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에 무언가 다른 식품을 조합하는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제품이 개발되게 됐다.

이름처럼 풍성한 맛을 주기 위해 약 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많은 연구 개발과정이 있었다.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을 묻혀보고, 크런치를 입혀보는 실험을 반복하면서 국내 최초의 크런치바를 출시하게 됐다. 초콜릿을 코팅하고 크런치를 입히는 기계와 공정 자체가 국내에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덴마크에서 새로 기계를 들여오면서 출시가 가능해졌다.

30살이 넘은 돼지바가 현재까지 판매된 개수는 21억개로 제품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9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돼지바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지금 돼지바의 트레이드마크는 초코 크런치와 딸기시럽이지만, 처음 출시된 돼지바에는 딸기시럽이 없었다. 또 크런치도 팡콩맛인 갈색 1종이었다. 1996년부터 딸기시럽이 추가되고 초코 맛인 블랙 크런치를 추가해 지금의 돼지바 모습을 갖추게 됐다.

### ◆패키지의 변화

제품과 함께 돼지 캐릭터를 비롯한 패키지도 꾸준히 바뀌어 왔다. 1983년 돼지바 출시부터 있었던 돼지 캐릭터는 1991년 복돼지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빠졌다. 1999년에는 패키지를 다시 리뉴얼하면서 이름도 '색색돼지바'로 바꾸었다. 출시 20주년을 맞은 2003년에는 다시 '돼지바'로 이름을 복원하고, 처음 출시된 돼지바 패키지를 계승해 연미복 차림의 돼지 캐릭터도 다시 살렸다. 2010년에는 돼지바 캐릭터를 조금 더 귀여운 모습으로 변경했고, 2017년 다시 연미복 차림의 발랄한 돼지 캐릭터로 바꾸는 등 시



1983년 돼지해에 크런치바 출시  
제품개선·브랜드 전략으로 성장  
크런치·딸기시럽 대표제품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신제품 출시  
성과 인정받아 SNS대상 수상도

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신해 왔다.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돼지바에 황금돼지 캐릭터를 적용한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이기도 했다. 황금돼지바에는 캐릭터뿐 아니라 복(福)글자와 4가지 새해 덕담을 함께 적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 ◆브랜드 전략

제품 개선뿐만 아니라 더 젊은 층을 향한 브랜드 전략도 지금의 돼지바가 존재하도록 했다. 2003년 아이돌 출신 인기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광고캠페인을 전개했다. 그 결과 '돼지바'는 2004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빙과부문 브랜드 파워 1위 제품으로 선정됐고, 연매출도 최초로 200억원을 넘어서며 빙과시장 빅 브랜드 제품으로 성장하게 됐다.

2006년에 이루어진 '돼지바'의 변신은 특히 눈에 띄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롯데푸드는 돼지바 CF에 과감하게 유머 코드를 적용해 유쾌함을 더했다. 중견배우 임채무를 모델로 기용해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심판을 맡았던 모레노 심판의 표정과 동작을 패러디한 이 CF는 특유의 유머러스한 표현 기법이 어필하면서 당시 온라인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이 CF로 임채무는 그 해 대한민국 광고대상 모델상을



돼지바 광고.



돼지바 공정.

/롯데푸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돼지바'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매출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에도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 ◆크런치+딸기=돼지바

돼지바가 크게 히트해 자리잡으면서, 돼지바는 검정과 갈색 크런치와 딸기시럽(또는 잼)이 조화를 이루는 식품을 이르는 말이 됐다. 실제 돼지와 상관없이 크런치와 딸기잼을 적용한 찰떡, 마카롱 등 각종 음식에는 어김 없이 돼지바라는 이름이 붙는다.

롯데푸드는 이를 활용해 SNS 채널에 돼지바를 변신시킨 다양한 이미지를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불러모으기도 했다. 돼지바 카츠샌드, 떠먹는 돼지바, 돼지바 시리얼, 돼지바 젤리, 돼지큐브 등 다양한 돼지바의 변신이 롯데푸드 SNS 채널에 올라왔고 이는 소비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호기심은 일방적인 광고 메시지가 만들지 못했던 돼지바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로열티를 강화시켰다.

롯데푸드는 이런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실제 제품 개발에 착수했고, 많은 검토와 연구 끝에 2017년 콘 아이스크림인 돼지콘과, 핫도그인 돼지바 핫도그를 출시하기도 했다.

돼지콘은 돼지바의 맛,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 바삭한 콘과자에 딸기시럽이 들어있는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채우고 비스킷 크런치와 초콜릿을 토핑했다. 돼지바보다 더 크고 풍부한 맛을 가져 돼지바의 형님이라는 애칭도 붙었다.

돼지콘은 출시 두 달 만에 1000만개가량 판매되며 롯데푸드의 주력 콘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 롯데푸드는 이 같은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기업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끊임없는 품질 개선과 함께 브랜드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사랑 받는 제품이 되도록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